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핵무기연구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만나시고 핵무기병기화 사업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핵무기연구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만나시고 핵무기병기화 사업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선로동당의 주체적핵무력 건설로선을 높이 받들고 우리의 미더운 국방과학부문의 핵과학자, 기술자들이 이룩한 자랑찬 핵무기병기화성과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 당의 미더운 《핵전투원》 들인 핵과학자, 기술자들이 당의 병진로선을 높이 받들고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고 자위적억제력을 억척같이 다지기 위한 국방과학연구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했다고, 우리 식의 혼합장약구조로서 열핵반응이 순간적으로 급속히 전개될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로 설계제작된 핵탄두가 정말 대단하다고, 핵탄을 경량화하여 탄도로켓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했는데 이것이 진짜 핵억제력이라고, 조선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못 해내는 일이 없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 당의 병진로선은 자위적핵무력을 강화 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경제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가장 혁명적이며 정당한 로선이라고 하시면서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제국주의의 핵위협과 전황이 계속되는 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로선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핵시설

들의 정상운동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여 필요한 핵물질들을 팡팡 생산하며 핵무기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보다 위력하고 정밀화, 소형화된 핵무기들과 그 운반수단들을 더 많이 만들뿐아니라 이미 실전배비한 핵타격수단들도 부단히 갱신하기 위한 대책을 따라세울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가 보유한 핵무력이 상대해야 할 진짜 《적》은 핵전쟁 그자체라고 하시면서 핵타격능력이 크고 강할수록 침략과 핵전쟁을 억제하는 힘은 그만큼 더 크다고,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억척같이 다져나가는것이 우리 조국강토에 들췌위질 핵전쟁의 참화를 막을수 있는 가장 정당하고 믿음직한 길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핵선제타격권은 결코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미제가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핵으로 덮치려 들 때에는 주저없이 핵으로 먼저 냅다칠것이라고 선언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탄도로켓발사훈련과 《조선인민군 땅크병경기대회-2016》을 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탄도로켓발사훈련을 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발사훈련장에서 전략군사령관 김락겸대장의 화력타격결심을 청취하시시고 비준하시였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탄도로켓발사훈련을 통하여 조선인민군 전략군 서부전선타격부대들의 전투적위력이 남김없이 파시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높은 기동력을 갖추고 적타격대상에 따르는 옳바른 사격방법을 적용한 전략군의 이번 화력타격훈련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장병들에게 최고사령관의 이름으로 뜨거운 전투적인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일군들과 핵무기연구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 조선인민군 전략군 지휘성원들에게 핵무기운영체계를 더욱 완성하고 주체적인 탄도로켓전을 옹기 버려나가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앞으로 핵무기연구부문과 로켓연구부문의 협

동을 더욱 강화하여 핵타격능력을 부단히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새로 연구제작한 핵탄두의 위력관정을 위한 핵폭발시험과 핵공격능력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시험들을 계속해나갈데 대한 전투적 과업들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핵무기연구부문에서 핵탄두취급절서를 엄격히 세우고 국가최대비상사태시 핵공격체계 가동의 신속성과 안전성을 확고히 보장하며 전략적핵무력에 대한 유일적령군체계, 관리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지금 호전광 박근혜무리들이 우리의 중대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지역에 미제침략군과 추종국가군대들을 포함한 방대한 침략무력과 미국의 수다한 핵전략장비들까지 끼어 들어오아들여 사상최대규모의 《키리졸브》, 《독수리 16》 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고 극히 모험적인 《작전계획 5015》에 준하여 실동적인 전쟁수행 방식으로 강행하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가장 로골적인 핵전쟁도발을 걸어온 이상 이에 따른 우리의 자위적대응조치도 보다 선제적이고 보다 공격적인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미제와 박근혜역적패당이 북침광기를 부리다 맥이 진하고 김이 빠질 때까지 남조선작전지대안의 주요타격대상들과 아시아태평양지역 미제침략군기지를 과녁으로 삼은 전략군의 모든 핵타격수단들을 항시적인 발사대기상태에 두고 만단의 결전준비태세를 갖추데 대하여 명령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군 땅크병경기대회-2016》을 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감시소에서 경기대회진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시고 경기를 시작할데 대한 명령을 내리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노도치는 무쇠철마들을 만족하게 바라보시며 땅크들이 장애물들을 날아넘다싶이 하는데 정말 불만 하다고, 땅크는 인민군대의 기상이라고 하시면서 가슴이 후련하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경기대회가 끝난 다음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에서 싸움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지휘관들이 땅크병싸움준비에 힘을 넣고 우리 나

라의 자연지리적조건에 맞는 땅크전법을 부단히 연구완성할데 대한 문제, 산악과 진펄, 강하천을 단숨에 극복하기 위한 훈련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 땅크운전기술과 사격술을 부단히 높이는것과 함께 승조협동동작을 완성할데 대한 문제, 부대들의 훈련장을 실전을 가상하여 더 잘 꾸릴데 대한 문제, 만능승조운동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문제 등 땅크병싸움준비완성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천금같은 기회는 우리가 먼저 선택하게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에서 백두산훈련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모든 군인들을 실전능력을 갖춘 일당백의 싸움군으로 키우고 고도의 격동상태를 유지하여 원수들이 감히 신성한 우리 조국강토에 선불질을 하려고 날뻐다면 무자비하게 격멸소탕하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용감한 땅크병들이 조국과 인민이 마련해 준 무쇠철갑으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보위하고 뜻깊은 올해를 전투력강화와 싸움준비완성으로 빛나게 장식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령장의 결심과 단호한 대응

지금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공화국의 정당한 핵억제력강화와 위성발사를 결코 들며 새로운 《제재결의》를 조작해낸데 이어 대규모의 《키리졸브》, 《독수리 16》 합동 군사연습을 개시하고 방대한 전쟁장비들과 무력을 남조선과 그 주변 해역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최신핵타격수단들과 술한 특수작전무력까지 동원한 이번 전쟁연습에서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세력은 공화국의 수뇌부와 《제재붕괴》를 노린 천하무도한 《참수작전》의 현실성을 검토하겠다고 꺼리낌없이 뉘엿뉘엿 전제열에 미쳐달뛰고있다. 하여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은 최대 격화되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최악의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현실은 미국의 범죄적인 유엔 《제재결의》 조작이 조선반도에서 기어이 전쟁의 불을 질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데 그 범죄적목적이 있다는것을 웅변해주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하루강아지범 무서운줄 모르는 어리석은 추태이고 설을 쥐고 불속에 뛰어드는것과 같은 자멸행위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아직도 자기들이 맞고있는 상대를 잘 모르고있다.

세기를 이어오는 조미대결전의 역사를 살펴보면 언제나 패배의 수치스러운 회기를 든것은 미국이었고 승리의 기발을 휘날린것은 조선이었다.

그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조선에는 천하를 쥐락펴락하는 백두의 천출위인들께서 이 조선을 이끄신데 있다.

예로부터 명장 밑에는 약졸이 없다고 하였다. 공화국의 군대가 그처럼

강하고 편전편승의 기적을 창조하여온것도 우연한것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60여년전 미국에 의해 일어난 조선전쟁은 세인이 평한것처럼 보병총과 원자탄과의 대결이었다. 미국은 이 전쟁에 자기 나라 육군의 3분의 1, 공군의 5분의 1, 태평양함대의 대부분 그리고 15개 추종국가군대와 남조선피뢰군, 일본군국주의자들을 포함하여 200여만의 대병력과 막대한 량의 최신전투기재들을 동원하였다. 지어 핵무기사용을 공언하며 공화국을 위협하였다.

그러나 전쟁은 청소한 공화국의 승리로 끝났다.

리유는 일제의 백만관동군을 타승하신 천하제일명장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을 이끄신데 있다.

북침전쟁의 불구름이 라래쳐오른 그날 미국놈들이 조선사람을 알기를 우습게 안다고, 승냥이는 몽둥이로 다스려야 한다는 말과 같이 조선사람을 몰라보고 덤비는 놈들에게 조

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시던 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은 전쟁의 운명을 이미 결정지은것이였다.

1960년대 말 미국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정탐활동을 하다가 조선인민군에 의해 나포되었을 때에도 미국은 추종세력들까지 다 동원하여 정치, 외교적압박을 하고 한차례의 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핵무기사용》, 《원산폭격》을 운운하며 갖은 위협을 다하였다.

그때 조선에서 울려나온것은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담할것이라는 추상같은 멸적의 선언이였다.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닌 백두의 천출명장과 그의 부름에 산악같이 일떠선 공화국군대의 억센 자위의 기상앞에 마침내 미국은 세계의 면전에서 무릎을 꿇고 사회문에 수표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나 그후에도 미국의 침략본성은 달라지지 않았다.

1993년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의 불순계층을 부추겨 공화국의 군사대상들에 대한 《특별사찰》을 강요하였다. 한편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살하려고 남조선에서 침략전쟁연습을 벌여놓고 이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하겠다고 로골적으로 위협해나섰다. 미국에 의해 조선반도에서 전쟁발발의 위험이 고조되던 그때 선군명장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전국, 전민, 전군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대하여》를 하달하시고 뒤이어 공화국정부가 나라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조치로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하시였다.

선군명장의 무비의 담력과 전략앞에 미국은 이미 벌리던 전쟁연습을 서둘러 중지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후 조미기본합의문에 서명하고 미국력사상 그 전례를 찾아볼수 없었던 대통령의 담보서한이라는 항복

서한까지 바치며 굴복해나선것은 미국이였다.

오늘 공화국의 진두에는 또 한번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신다.

우리 겨레와 세인은 지나온 수년간을 통하여 령장으로서의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인상을 잘 알고있다.

전략로케트군 화력타격임무수행과 관련한 작전회의를 긴급소집하시고 화력타격계획도 최종비준하시여 세기를 이어 벌어지는 미국과의 대결전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력사의 페이지를 열기 위한 중대결심을 천명하신 무비의 담력, 인민군부대들의 훈련을 지도하시면서 이제 당장이라도 싸움이 벌어지면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놈도 없게 모조리 쓸어버리라고 하신 단호한 징벌의지, 이 땅에서 또다시 전쟁이 터진다면 상용전쟁이든 핵전쟁이든 그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다 맞대응하여 병적거부감과 체질적인 적대시정책을 추구하는 미국과 추종세력에게 종국적멸망의 페이지를 써주자고 하신 령장의 확

고한 결심을.

이것을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망각한다면 차례질것은 수치와 파멸뿐이다.

얼마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신형대구경방사도들의 시험사격을 지도하시면서 지금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혹한 정세에 대처하여 군사적대응방식을 선제공격적인 방식으로 모두 전환시킬데 대해서와 국가방위를 위하여 실전배비한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쏘버릴수 있게 항시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말씀은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해치려는 침략자, 도발자들에게 죽음의 철추를 내리는 백두령장의 불호령이며 병진로선의 기치높이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이룩하시려는 멸적의 선언이다.

그이의 결심은 곧 실천이다. 미국이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이 땅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튀긴다면 공화국의 서리발치는 백두산총대는 쌓이고 쌓인 분노를 터쳐 침략자들에게 무서운 보복의 불벼락을 안기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인 대사변을 기어이 안아오게 될것이다.

리철희



이번에 공화국은 우리 식의 혼합장약구조로 설계 제작된 위력이 세고 소형화된 핵탄두를 공개하여 세인을 깜짝 놀래우고있다.

지금까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공화국이 아직 핵무기소형화를 이루지 못하였다는니, 핵무기개발과정에 있다느니 하며 우리의 핵무력의 위력을 과소평가하려고 안간힘을 써왔다.

그런데 이번에 소형화,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의 실물이 사진으로 공개된것이다. 공화국이 도발의 본거지를 핵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하고 실전배비한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쏘버릴수 있게 항시적으로 준비를 갖추었다고 한 경교가 결코 빈말이 아니였음이 증명된것이다.

그 위력을 상상할수 없는 정의의 핵탄, 그 핵탄을 조선은 이미 소형화했고 각종 운반수단들에 탑재할수 있게 표준화, 규격화까지 해놓은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보아주시던 그 자랑스러운 정의의 핵탄이 놓여있는 장소에는 미국본토에 다달을수 있는 탄도로케트들이 주련히 전시되어있었다.

그 탄도로케트에도 장착

할수 있는 위력한 핵탄까지 갖추었으니 공화국의 핵전쟁준비는 사실상 다 된것이 나 마찬가지이다.

조선에서 대양건너에 있는 미국도 이 핵무기의 사정권안에 들어있어 무사할수 없게 되었다.

핵탄두를 보아주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식의 혼합장약구조로 소형화한 핵탄두를 장거리미싸일에 장착할수 있는 능력을 개발했을 경우 이에 어떻게 확실히 대처할것인가를 걱정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개탄하였다.

조선의 핵탄

두가 정말 대단하다고, 핵탄을 경량화하여 탄도로케트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했는데 이것이 진자 핵억제력이라고 하시며 대단히 만족해하시였다. 그러면서 핵시설들의 정상운영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여 필요한 핵물질들을 광광 생산하며 핵무기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보다 위력하고 정밀화, 소형화된 핵무기들과 그 운반수단들을 다 많이 만들뿐아니라 이미 실전배비한 핵타격수단들도 부단히 갱신하기 위한 대책을 따라세울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공화국이 핵탄을 공개한 것과 관련하여 지금 적대세

력들은 혼비백산하여 《북의 핵, 미싸일기술이 우리의 예상보다 더욱 발전했을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언제든지 핵타격을 가할수 있다.》며 아우성칠고있다. 미국 공군참모총장도 《북이 운영가능한 핵탄두를 장거리미싸일에 장착할수 있는 능력을 개발했을 경우 이에 어떻게 확실히 대처할것인가를 걱정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개탄하였다.

공화국이 핵억제력을 보유한것은 미국의 침략위협, 핵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운명을 지키기 위한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악무도한 미국은 유엔을 도용하여 불법무도한 《제재결의》라는것을 조작해내고 전략핵타격수단들까지 총동원하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위협과 북침핵전쟁소동에 혈안이 되고있다.

현실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압살야망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공화국이 자위의 핵을 보유한것이 얼마나 천만번 정당화가 하는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공화국은 이미 미국이 우

리의 존엄과 자주권, 생존권을 없애버리려고 피를 물고 덤벼드는 엄중한 상황에 대처하여 무자비한 섬멸적타격을 가할수 있게 선제공격적인 군사적대응방식을 취하게 될것이라는것을 엄숙히 천명하였다.

침략의 핵에는 정의의 핵으로!

이것은 천출명장의 탁월한 평도를 받는 선군조선의 단호하고도 드세찬 멸적의 선언이다.

핵무기연구소를 찾으시여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하시는 자리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핵선제타격권은 결코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라, 미제가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핵으로 덮치려 들때에는 주저없이 핵으로 먼저 냅다칠것이라고 단호히 선언하시였다.

적대세력들은 조선에서 우리는 선군명장의 이 우뢰와 같은 징벌의 선언을 무심히 듣지 말아야 할것이다.

만약 적들이 이 땅에 북침전쟁연습의 사소한 불꽃이라도 튀긴다면 소형화,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들을 탑재한 정의의 탄도로케트들이 침략의 본거지들에 사정없이 들췌워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도발에는 지체 없는 섬멸적 반타격으로

연평도불바다의 교훈을 망각한 적들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기어이 강행하려고 획책하고있던 주제 101(2012)년 8월 중순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작은 목선을 타시고 서남전선의 최남단 최대열점지역에 위치한 장제도방어대와 무도방어대(당시)를 시찰하시였다. 그날 무도방어대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전날에 내린 비로 미끄럽고 가파로운 길을 뚫으시며 감시소로 오르

시였다.

적의 군사대상물들을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무도방어대 군인들이 적들의 일거일동을 경각성있게 주시하며 만일 도발을 걸어온다면 지체없이 섬멸적인 반타격을 가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내외호전광들의 무분별한 북침전쟁책동으로 하여 침해한 정세가 조성된 준엄한 시각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단행하신 그날의 현시시찰은 군인들의 가슴마다에 무한한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말과 행동이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주제 103(2014)년 7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서부전선타격부대들의 전술로케트발사훈련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전술로케트발사훈련이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신속한 기동과 배합하여 성과적으로 진행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전략군의 싸움준비와 주제적인 로케트전법을 적용하는데서 나서는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는 말과 행동이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한

본사기자

위대한 인민의 모습

장산리의 품금소리

조선에서 가벌치절한 전쟁이 한창이던 주제41(1952)년 6월 20일 저녁이었다. 이날 저녁 평안북도 룡천군 장산리(당시 하장리)의 당원들은 민주선전실에 모여 당세포총회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이날 자기들에게 어떤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랐다. 이 시각 전선과 후방의 모든 중하를 한몸에 지니고 영웅적인민군대와 인민들을 전정승리로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용히 당세포총회에 참석하시었다. 전쟁의 엄혹한 시련을 이겨나가고 있는 농민들의 꾸밈없는 목소리를 듣고싶으시어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참가하시었던 것이다.

회의에서 당원들은 저마다 일어나 열정적으로 토론하였다. 그 토론내용들은 다같이 수령님의 은덕에 보답하기 위해 농사를 더 잘 지어 전선에 많은 식량을 보내주며 후방을 철벽으로 지키겠다는 불같은 맹세와 수령님께서 계시는 한 우리는 반드시 전쟁에서 이긴다는 필승의 신념과 의지로 일관되어 있었다.

이윽고 세포비서가 휴회를 선언하고 박신복녀성이 품금으로 다가가 투정을 열어제겼다. 그러자 녀당원들이 약속이나 한듯 품금주위에 모여들었다. 민주선전실안에는 영생불멸

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혁명가요, 전시가요선률이 힘차게 울려 퍼졌다.

전쟁의 검은 구름을 훑아내려보내며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장산리의 노래소리, 정녕 이것은 가장 준엄한 시기에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승리를 향해 역세계 싸워나가는 조선인민의 심장의 웨침이었다.

그들의 노래소리가 끝날무렵에야 위대한 수령님께서 장산리사람들앞으로 나서시었다. 온방안에서는 감격의 환호성, 만세의 환호성이 폭풍처럼 터져 울렸다.

이날 이곳 당세포총회에 참가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당원들의 토론을 들어주시고 토론을 잘했다고 치하도 해주시면서 자신께서 큰 고무를 얻었다고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의지가 강하면 어떤 곤란이라도 뚫고나갈수 있다고 하시면서 농민들의 첫째가는 과업은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여 전선에 보내는것인데 비료공장이 파괴되어 화학비료를 보장하지 못하면 풀을 베어 썩여서라도 농사를 잘 지어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었다.

수령님의 두리에 모여앉아 그이의 말씀을 귀담아듣는 그들의 얼굴에는 어떻게 하나 농사를 잘 지어 전쟁승리에 이바지하려는 불타는 결의가 어려 있었다.

그 후 장산리녀성들은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남정력이라한 늙은이와 불구자들밖에 없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소겨리반을 못고 보람을 잡았으며 논밭에 나갈 때에는 거름을 지고 나가고 들어올 때는 풀단을 지고 들어와 거름을 장만했다.

그들은 밤에도 나가 모를 뜨고 새벽에는 방아로 쌀을 찧어 전선에 보냈으며 등잔불심을 돌구어가며 군복을 지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전쟁승리에 대한 신심을 가지고 예술소조활동을 힘있게 벌려 승리의 노래가 그칠새없이 울리게 하였다.

그때로부터 10여년 세월이 흐른 주제55(1966)년 여름 어느날 장산리를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때의 당원들의 안부를 하나하나 물어주시면서 품금을 타던 박신복녀성이 세상을 떠났다는것을 아시고는 몹시 가슴아파하시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이후에도 장산리의 그 밤을 회고하시며 장산리녀성당원들이 회의후식시간에 품금을 치고 노래를 부르는것을 보고 큰 힘을 얻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전쟁시기 장산리녀성당원들의 그 모습은 가장 어려웠던 시기 령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를 보여주는 숭고한 화폭이었다.

본사기자 김춘경

사랑이로 이기는 싸움

올해의 3.8국제부녀절은 류달랐다. 적대세력들이 최대규모의 핵전쟁연습을 벌려놓고있고 공화국을 고립압살시키기 위한 《초강도대북제재결의》 채택놀음이 벌어진 직후였다. 하여 조선반도에는 핵전쟁의 검은 구름이 그 어느때보다도 무겁게 드리워져있다.

바로 이런 때 맞이한 3.8국제부녀절, 공화국의 이 하루는 어떻게 흘러갔는가.

이날 공화국에서는 사랑의 노래, 행복의 웃음소리가 온하루 그칠줄 몰랐다.

3.8국제부녀절 106돛기념 중앙보급회와 진행되었고 문화예술극장에서 국립민족예술단의 음악무용종합공원이 있었다.

각 공장, 기업소들, 협동농장들에서도 다채로운 기념행사들과 예술공연들이 진행되었다.

가는 곳마다 울리는 《조선의 어머니》, 《정든님 돌아왔네》, 《녀성은 꽃이라네》, 《우리 집 사람》, 《사랑하시라》, 《녀성의 노래》, 《예쁜이》, 《어머니의 행복》 등을 비롯하여 어머니에 대한 노래, 녀성에 대한 노래, 사랑에 대한 노래들

을 들으며 녀성들의 가슴가슴은 조선녀성으로 태어난 행복과 긍지, 자부심으로 한껏 부풀어있었다.

거리들에는 꽃다발과 꽃송이를 들고 오가는 남성들의 모습이 쉬이 눈에 띄었으며 상점들은 각종 기념품들을 준비하느라 붐비는 손님들로 가득 찼다.

남자들과 똑같이 70일전투에서 기적과 혁신을 이룩해나가고있는 미더운 녀성들에게 향기로운 꽃다발과 축하의 인사를 보내었다. TV에서도 3.8국제부녀절을 맞는 녀성들을 축하하는 다채로운 편집물들이 방영되었다.

전시상태나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금의 정세가 아닌가. 아마 다른 나라같으면 상상도 못할것이다.

공화국을 질식시키려고 하늘과 땅, 바다를 봉쇄하고 남조선에서는 반대한 무력과 핵전쟁장비들이 동원된 사상 최대규모의 《키 리졸브》, 《독수리16》 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지고있다.

그 어디를 가나 공화국의 존엄을 건드린 미제와 박근혜 패당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울리고있고 수백만명이 총을 잡겠다고 조선인민군 입대, 복대를 탄원해나서고있다.

당장 전쟁이 터졌다 해도 놀라울것없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공화국에서는 평화스러운 녀성들의 웃음소리, 사랑의 노래가 높이 울려 퍼졌다.

한 전쟁로병은 축복속에 웃음짓는 녀성들의 모습을 보며

1952년 2월 평양에서 열린 화선음악회가 생각난다고, 그때 우리는 전쟁의 포화속에서도 승리를 확신했었다고 말하였다. 래일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웃으며 노래를 부를수 있었는가.

《유일초대국》이라 으시대는 미국을 귀락파락하시는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진두에 높이 모시고있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마련해놓으신 핵무기보다 강한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이 있으며 적대세력이 공포에 떠는 강위력한 자위적책도 가지고 있다.

3.8국제부녀절에 가정과 일터, 거리들에서 녀성들을 축하해주는 사람들과 그 축하의 꽃다발들을 받아든 녀성들의 얼굴들마다에는 행복의 웃음, 아름다운 삶에 대한 긍지와 기쁨이 한껏 넘쳐있었다. 지금 벌어지는 적대세력들과의 판거리 최후결전도 우리의 사랑하는 녀성들과 아이들, 행복한 삶의 이 터전을 지키고 더욱 빛내여가기 위한 정의의 성전이다.

핵무기보다 더욱 강한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다. 사랑의 화원에서 높이 울린 축하의 노래, 모두의 기쁨의 웃음소리는 적대세력이 벌리는 《제재》와 전쟁연습의 평음을 훑아내려버리며 불빛 서려오는 3월의 대지에 끝없이 울려 퍼졌다.

리성심

서방의 언론들은 매일같이 공화국에 대해 나쁜 보도만을 날리고있다. 《궤주립》이니, 《공포》니, 《인련》이니...
그런 선전을 밥먹듯이 들어온 내가 공화국을 처음으로 방문하여 받은 소감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보고 듣고 느낀것 모두가 충격적이었고 새롭고 감동적인것이었다.
특히 아이들에 대한 공화국의 사랑과 배려를 직접 체험하면서 감동을 금할수가 없었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비롯한 학생소년궁전들, 유류아동병원, 평양과 원산의 육아원과 애육원, 경성락아소와 유치원, 평양아동백화점, 시내 곳곳의 로라스케트장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와 각지의 소년단야영소들...
가는 곳마다에 인민의 꿈과 이상이 실현되고 희망하고 멋있는 광경이 펼쳐지고있는 공화국의 실상을 그대로 적어본다.

미래가 웃는 땅 (1)

졌는가?
내가 이런 생각으로 다가서보니 생명이 위급한 한 어린이를 위해 천만 뜻밖에도 저마다 자기 피를 뽑아야 한다면서 복도가 미여지게 말그대로 《란장판》이 벌어졌던 것이었다.
《전 이 어린이의 담당 간호원입니다. 제 피를 뽑아야 합니다.》
담당간호원의 울음섞인 절절한 목소리에 이어 담당의사의 말소리가 울려왔다.

《진회동무, 안돼요, 환자의 생명은 뛰니뛰니 해도 담당의사가 책임져요. 그러니 응당 내 피를 뽑아야 해요.》
《됐소, 됐소. 내 피는 0형이니 내 피를 뽑으시오.》 하며 한사람이 나타나 팔을 걷어올렸다.
《안됩니다. 부원장 선생은 옛그제 화상당한 어린이에게도 수혈해주지 않았습니까? 정말 안됩니다.》
《동무, 난 기술부원장이요.》
《예? 이런 때에야?...》
간호원처녀는 살짝 웃

천국이다.
그런데 이때 퇴원수속 칸앞에서 칭얼대는듯 한 어린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나 집에 안갈래, 병원에서 살래.》
(이건 또 뭐야? 병원에서 살겠다니...)
네살이나 되었을가, 총각애가 엄마인듯 한 걸음을 재촉하는 젊은 녀인의 손목을 부여잡고 병원에서 살자고 통사정을 하는 것이었다.
무슨 일인가고 물으니 녀인은 《우리 집 외아들이 오늘 병원생활을 마치게 되었는데는 날인데 글썽 부정부정하니 엄연한 현실이니 놀라움과 감탄으로 나는 가슴이 뭉클하였다.
나에게는 자신보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여기 보건일꾼들이 하늘의 천얼마나 아름다운 인간들이인가! 여기는 진정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하며 형제들을 위해서는 목숨도 내놓아야 한다는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계명이 그대로 실천되는 지상

풍거리며 총각애는 신이 나서 말했다.
원, 세상에 집보다 병원이 더 좋을수가 있을까? 병원이란 길길이 뛰며 뒤걸음치던 철부지들의 대답치고는 너무도 천연스럽다.
친자식마냥 품에 안고 체온도 재주고 자장자장 꿈나라로 보내주던 고운 간호원아지미가 제 엄마 같아서일까?
어린이놀이장에 있는 꼬마풍구대며 미끄럼대, 놀이기구가 어서 오라 반기고 맛있는 영양음식을 만들어 한술두술 떠넣어주는 고마운 사람들이 일하는 병원이어서 정든 제 집과 사갈만한것인가.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이 나를 놀라게 하였는데 유류아동병원에 치료받으면서 배우는 특별한 교육체계까지 마련되어있는것이였다.
아이들의 학습실이 있는가 하면 그를 위해 배치된 선생님까지 있다.
입원하여 건강회복기간에 아이들은 여기서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에 맞춰 빨리 집에 가요.》
《집보다 여기가 더 좋아요.》
머루알같은 눈알을 울

엿보게 하는 현실이 아닐수 없다.
나는 류다른 《출석부》에 올라있는 아이들의 이름을 한자한자 조용히 불러보았다.
박형복, 최광명, 리지혜, 오광일...
병원과 학교라는 서로 다른 두 세계를 융합시킨것은 참으로 탄복할 일이였다.
물거니 이 지구상에 역만세부를 자랑하고 《만민복지》를 떠드는 나라들이 많지만 평범한 인민의 자식들이 담당의사와 교원을 곁에 두고 병치료를 하는 나라가 그 어디에 있던 말인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미래를 귀중히 여기는 사회가 아니고서는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이런 세계를 도저히 이룰수가 없다. 복이 아니면 도저히 생각할수도 실현시킬수도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 젖어들었다.
정녕 유류아동병원은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고 키워주는 공화국의 따뜻한 사랑, 무상치료혜택속에 사회주의 향기가 넘쳐나는 아이들의 참다운 궁전이였다.

재미동포 박윤자

《엄마, 나 병원에서 살래》

무릇 병원이라면 아이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곳이다.
주사를 놓고 쓴약을 먹이며 상한 이발을 뽑고...
그런데 그렇듯 병원이란 딱 질색인 아이들이 병원에 가고, 집에 안가고 병원에서 살겠다고 한다니 이보다 더 회한한 일이 또 어디 있으랴.
이 이야기가 바로 공화국녀성들이 친정집으로 일러오는 평양산원 맞은편에 아이들이 어서 오라 부르며 새롭게 일떠선 유류아동병원에서 있는 전설같은 이야기이다.
엄마의 손목을 잡고 귀여운 아기가 하나 둘 총총계단을 오르는듯, 포근히 감싸안는듯 한 친근함과 살뜰함이 한껏 비껴있는 병원의 절모양이 참으로 정답게 안겨왔다.
병원안에는 동심에 맞는 많은 만화들이 각종 모형들과 조화를 이루며 기묘모하게 붙어있는데다

가 현대적인 치료설비들과 입원실들이 그뿐하게 갖춰져있어 그야말로 옛말속의 동화세계에 들어서는 느낌이었다.
여기서 아이들이 무상으로 치료를 받는다. 돈 없이 치료받는다는 소리는 돈주머니에 먼저 청진기를 대는 미국이나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별나 이야기지만 여기서는 그것이 그대로 현실로 펼쳐지고있다.
그리고보면 유류아동병원은 아이들을 위한 사랑의 궁전, 치료궁전이였다.
병원에 갑자기 소동이 일어났다.
글쎄 그러면 그렇겠지, 여기도 역시 병원이니까 하는 생각으로 나는 수술실로 막 뛰어가는데 사람들의 물결이 떠밀려 그곳으로 다가갔다.
거기서는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었다.
돈이 없어 소동이 벌어



정의의 길에서는 한걸음도 물러설수 없다

요즘 우리 공화국의 평화직위성발사를 비법시하는 유엔의 《제재결의안》이라는것이 조작되어 세상이 시골벽적이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을 비롯한 반공화국적대세력은 이 《제재결의안》을 두고 《유엔의 70년 역사상 가장 강력한 비군사적징벌》, 《전례없이 가혹한 제재》, 《핵포기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게 할 공조》니 뭐니 하며 환성을 울리고있다.

참으로 가소롭기 그지없다. 미국이 추종세력들과 함께 꼭두각시로 전락된 유엔의 이름까지 도용하여 수십년간 우리를 목조르기한다고 하였지만 반대로 목조르기를 당하고있는것이 누구인가.

우리는 이미 지구상에 일찌기 없었던 별의별 역풍을 다 겪어왔으며 남들같으면 열백번도 주저앉았을 최악의 상황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극복하면서 할것을 다하고 가질것을 다가지었다. 이제 당장 전쟁이 터진다고 해도 눈섭하나 까딱하지 않고 대처할 만단의 준비가 되어있다.

이번에 50여일간 끌어온 그 무슨 《결의안》 채택과정을 보면 유엔이라는것이 결국 세계무대에서 발언권과 결정권을 행사한다는 몇몇 나라들이 자기 나라 중심의 극도의리익을 추구하는 각축전장이고 대국위주의 정치적홍정관에 불과하다는것이 더욱 명백해졌다.

우리는 그런 곳에서 주권국가들의 존엄과 생존권이 보장되고 정의와 공정성이 담보되는 그 어떤 결의라는것이 나오리라는 생각을 이미 버린지 오래다.

이번에 미국은 혼자서는 도저히 상대할수 없는 우리 공화국과의 대결을

위해 잡동사니추종세력들을 잔뜩 끌어모아 못해 몇몇 중량급 나라들을 《싸드》로 위협하고 회유하는 수법으로 《제재》놀음에 끌어들이고는 《대승리》나 거둔듯이 축배잔을 들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작은 나라에 배지기를 당한 대국의 수치심을 가리우기 위해 손을 막고 마시는 고배의 쓴 잔에 불과하다.

이번 유엔 《제재결의안》 채택과정은 사실상 거인을 상대로 하는 널뛰기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소인배들이 잔뜩 모아붙여 끌어안은 꼴이었다. 말하자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줄을 선 나라들이 많을수록 그만큼 우리 공화국의 무게와 힘이 크다는것을 의미한다. 결국 이번에 미국스스로가 우리 공화국은 이 세계에서 누구도 당할수 없는 강국이고 대국이라는것을 온 세상에 증명해주었다.

이것이 이번에 우리의 수소탄시험과 위성발사성공이후 벌어진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제재》소동을 통해 우리가 얻은 또 하나의 소중한 승리이고 자랑찬 총화이다.

이제는 다종다양한 핵무기도 개발하고 미국을 마음먹은대로 두들겨낼수 있는 막강한 수단을 가진 우리에게 그 어떤 《제재》가 열백번 가해진들 무용지물일뿐이며 오히려 그것은 도발자들의 숨통을 더욱 조이고 멸망을 재촉하게 될뿐이다.

이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정의임을 역사가 증명해주었음에도 요즘 일부 주변나라들에서는 미국의 일방적인 강권과 전횡에 놀아난 저들의 잘못된 결정과 부끄러운 행동에 대해 죄의식이 느껴져서인지 이러쿵저러쿵하는 소리들이 나오고있다.

리 준 혁

그가운데는 이번 《결의》 채택에 찬성은 했지만 조선이 《질식되지 않게 숨구멍은 열어두었다.》느니, 《체제붕괴를 노린것은 절대로 아니다.》느니 하고 생색을 내고 나아가서 조선에는 핵보유의 길은 통하지 않으니 《정책을 변화시켜 한걸음 물러서면 앞길이 트일것》이라는 혼시조의 궤변들도 있다.

우리에게는 적들과의 싸움에서 한걸음 물러서면 두걸음 물러서고 열걸음 물러서면 백걸음 물러서게 된다는 혁명지론이 있다. 원주와의 싸움에서 오직 공격만이 승리이라는것은 우리 혁명의 시원이 열린 때로부터 시종일관 견지해온 원칙이다. 그래서 한때 여러 나라들을 품기했던 《1보 전진, 2보 퇴각》이라는 명제도 우리에게 통하지 않았다.

자기 우월감에 사로잡혀 비리성적이고 몰상식한 그런 내정간섭적인 발언을 쏟아낸다고 하여 대국으로서 그 누구의 인정을 받는것도 아니다. 오히려 자주시대에 역행하는 일변도적 사고에서 나온 과대망상증으로 비판 받아야 마땅하다.

지구상에는 큰 나라와 작은 나라는 있어도 높은 나라와 낮은 나라는 있을수 없다. 큰 나라가 자기과신에 빠져 헛걸음을 내짚으면 더 큰 수치를 당하게 된다.

정당한 주장과 충고는 관계발전에 유익한 보약으로 되지만 부당한 강변이나 주재념은 혼시는 관계발전을 저해하는 독약으로 된다.

문제는 자기 나라 중심의 리해관계를 자대로 하여 공동으로 이룩해놓은 쌍방사이의 력사와 전통, 귀중한 의

리도 서슴없이 버리는 측들이 그러한 충고아닌 《충고》를 하고있는데 있다. 사실 우리가 허리띠를 조이고 자력자강의 강행군으로 우리 식 핵보유의 길을 거어이 개척해온데는 그러한 나라들의 《배신적역할》이 컸다고 할수 있다.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은 오직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한다는 철의 진리를 력사와 현실을 통해 똑똑히 깨달은 우리가 일단 틀어쥔 핵보급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다는것쯤은 알고 말을 해도 해야 한다.

에나 지금이나 세계정치는 오직 힘에 의해 좌우되며 힘만이 균형을 유지하는 유일하게 공정한 기준이라는것은 하나의 법칙으로 되고있다. 핵으로 위협하는 상대에게 대응할수 있는 가장 공정한 균형추는 명백히 핵이다.

우리는 이웃나라들이 핵무기를 개발할 때부터 이미 세계정치를 지배하는 맹목한 이 힘의 료리를 꿰뚫고있었고 이 지구상에서 가장 포악하고 침략적인 미제와 맞서야 하겠기에 값비싼 대가를 치를것을 각오하고 핵보유의 길을 선택했다.

그런데 자기를 거울로 하여 남을 들여다보지 않고 미국의 《싸드》 위협에 놀리워 우리에게 핵포기를 강박하는 태도는 극단한 모순이며 자기기만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때까지 그 누구의 도움만을 받고 살아오지 않았으며 도와줄것은 피로써 도와주고 지켜줄것은 사심없이 지켜주면서 지역의 평화와 나라들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여왔다.

호혜와 평등, 공존공영을 위해 상부상조하고 서로의 자주권을 존

중하며 국제무대에서 공정한 립장을 취하는것이 나라들사이에 갖추어야 할 기본자세와 품격으로 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의 세계는 힘의 만능론, 대국중심의 강권과 전횡만이 판을 치는 불평등한 질서가 고착되어가고있다. 따라서 공정한 판단의 기준도 없는 이 지구상에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강도적인 침략론리만이 지배하고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누가 우리를 리해해주거나 어떤 《선심》같은것을 베풀것을 애당초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막강한 핵억제력을 보유하고 풍부한 자원에 기초한 튼튼한 자립적경제태도도 갖추었다.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궤변군들의 《제재》와 방해책동으로 하여 지금 당장은 명명거리지 못해도 얼마든지 자력으로 살아갈수 있고 강성국가건설의 목표도 달성할수 있다.

유라시아대륙의 판문에 위치하고있는 우리의 지정학적위치와 전략적가치는 머지않아 많은 나라들의 계산과 선택을 바꾸어놓게 될것이다. 우리는 그날을 똑똑히 보고있으며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벌써부터 듣고있다.

시간은 정의의 힘을 갖춘 우리의 편에 있다.

미국의 아시아재편전략의 중심이 이제 어디로 이동하고 그 불꽃이 어떻게 일어번지게 되겠는가 하는데 대해 이 지역의 나라들이 지금부터 심중히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것이다.

목적의 리익에 눈이 어두워 조선반도의 미래를 전략적이고 팽성한 안목에서 보지 못한다면 커다란 전략적오류를 범하게 된다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최근 공화국에 대한 적대세력들의 정치, 경제, 군사적압박과 봉쇄책동은 최절정에 달하고있다. 3월 2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공화국의 정당한 자위적권리행사를 시비하며 비렬한 《제재결의》를 조작한 적대세력은 련이어 7일부터는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키 리졸브》, 《독수리 16》 합동군사연습을 사상최대의 규모에서 발광적으로 벌리며 공화국을 압박해나서고있다.

《제재》가 공화국을 경제적으로 질식시키기 위한것이라면 《참수작전》을 운운하고 미국의 《전략자산》들을 총투입하여 벌어지는 북침합동전쟁연습은 군사적힘으로 공화국을 굴복시키고 무너뜨려보겠다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이번 《고강도제재결의》가 《유엔역사상 비군사적조치로서는 가장 강력한 제재》니, 《단호하고 분명한 메시지》니, 《중대한 압박》이니 하면서 마치 큰 일이나 칠것처럼 고아대고있다. 남조선의 역적패당도 얼마전에는 《유엔제재》와는 별도로 《독자제재》라는것을 발표하고 《이번에야말로 북이 핵과 미싸일을 개발하면서 정상적으로 체제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깨닫도록 하겠다.》고 흰소리를 쳤다.

적대세력들이 노리는 《제재》와 군사적압박의 궁극적목표는 공화국을 굴복시켜 핵과 인공위성발사를 포기하도록 하자라는것이다.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1%의 가능성도 없고 저들자신의 맥만 뽑는 허황한 소동이 아닐수 없다.

미국과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은 아직도 공화국이 어떤 나라인지 잘 모르고있다. 조선은 제재와 압박을 받아 횡기를 들고 무너진 이라크와 같은 나라도 아니고 군사적침공위협에 겁을 먹고 스스로 핵을 포기하여 자멸의 길로 간 리비아와 같은 나라는 더우기 아니다.

공화국은 자주권과 존엄을 생명으로 여기는 나라이다.

《제재》와 압박을 이기는 조선의 힘

자주, 이것은 세상의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공화국의 특징이고 홀려온 공화국의 빛나는 력사이다.

공화국은 창건 첫날부터 자주 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 력사의 광풍에도 조금도 끄떡하지 않고 오직 자기가 선택한 정의의 한길로만 걸어왔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모든것을 빈터우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던 전후의 그 어려운 시기 대국주의자들이 《원조》를 구실로 《썩브》에 들라고 강요할 때에도, 1968년 비법적인 정탐활동을 하다가 나포된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돌려보내라고 갖은 위협과 공갈이 가해질 때도 공화국은 자주적원칙과 존엄을 끝까지 지키었다.

공화국이 이번에 적대세력의 압력과 위협속에서도 첫 수소탄시험을 단행하고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를 발사한것도 국가의 자주적권리를 추호도 양보할수 없기때문이다. 하기에 다른 나라사람들도 핵시험이나 위성발사는 기술이 아무리 높은 나라라도 강한 자주적대가가 없이는 도저히 실현할수 없는 일이다. 조선의 위성발사는 자주성을 지향하는 나라와 민족들이 우주개발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보여준 산모범으로 된다고 평한것이다.

적들이 칼을 내대면 장검을 내대고 총을 내대면 대포로 대답하는것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이 없는 공화국의 역센 기상이고 기질이다.

그 기상, 그 기질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있는가. 누구든 조

말받아 나아가는 조선의 기상이 적대세력의 면상을 후려치는 돌풍이라면 공화국이 추켜든 자강의 기치는 《제재》와 압살소동을 풍지박산으로 만드는 조선의 또 하나의 신비한 무기이다.

일찌기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자력자강의 정신은 지난날 낮이나 호미밖에 만들수 없었던 락후한 식민지농업국가를 자립적민족경제를 가진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웠다. 자립의 튼튼한 만년터전우에서 공화국은 지금껏 그 어떤 《제재》를 다 받으면서도 끄떡없이 발

과 부흥의 한길을 걸어왔으며 오늘은 문명강국을 보란듯이 건설해가고있다.

《제재》보다 몇십, 몇백배 더 강한것이 조선의 자강력이다. 이번에 세상에 공개된 조선의 위력한 핵탄도 자강력의 산물이다.

적대세력들의 대조선 《경제제재》와 군사적위협이 공화국에 절대로 통할수 없는 결정적리유는 조선에는 탁월한 선군령장이 계신다는데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억년드놀지 않는 철의 신념과 의지, 무비의 담력과 배짱, 백두산악과도 같은 단호한 기상을 지니신 위인이시고 천하제일명장이다.

적대세력이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여 천부당만부당한 《제

재결의》를 발표하던 때에 신형대구경방사포시험사격을 지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금 적들이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 생존권을 해치려고 미친듯이 발광하면서 이른바 《참수작전》과 《체제붕괴》와 같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마지막도박에 매달리고있는것으로 하여 정세는 더이상 수수방관할수 없는 험악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시면서 이제 적들에 대한 우리의 군사적대응방식을 선제공격적인 방식으로 모두 전환시킬것이라고 선언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국가방위를 위하여 실전배비한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쏘버릴수 있게 항시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이 말씀은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해치려는 침략자, 도발자들에게 죽음의 철추를 내리는 백두령장의 불호령이며 병진로선의 기치높이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이룩하시려는 멸적의 선언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아 주신 처음 공개된 핵탄은 적대세력의 무모한 대결광증에 대한 조선의 대답이 무엇인가를 명쾌하게 말해주고있다.

위대한 령장의 두리에 한사람같이 굳게 뭉친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적대세력의 미친 《제재》와 핵전쟁소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며 세기를 이어오는 정의의 반미대결전과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최후승리를 거어이 이룩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박근혜 패당의 어리석은 《제재》 놀음은 자멸을 더욱 재촉하게 될뿐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우리의 수소탄시험 완전성공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성과적발사에 기절초풍한 만고역적 박근혜패당의 대결광기가 갈수록 가파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유엔 《제재결의》가 조작되자 회색이 만연하여 돌아치던 박근혜패당이 숨어가 뛰니 망둥이도 뾰다는 격으로 우리에게 대한 그 무슨 독자 《제재》라는것을 발표하는 놀음을 벌린것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 일군들과 단체들에 대한 《자산동결》 및 《금융거래차단》, 우리 제품에 대한 《반입통제》와 우리 항구에 들어왔던 선박들의 《입항금지》 등 황당무계한 내용들로 가득찬 이번 《제재안》에 대하여 말한다면 아무데도 소용없는 물건짝에 불과하다.

사람들은 《돈줄》이니 뿔니 하며 북남관계를 모조리 차단한 괴뢰들의 광대놀음에 조소를 금지 못하며 침을 뱉고있다.

이번 《제재》 발표놀음은 우리의 주체란, 통일란목숨에 완전히 얼흔이 나간 역적패당의 단말마적발악이머 스스로 실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정신병자들의 어리석은 망둥이다.

우리의 핵무력은 수십년세월 허리머를 조이며 다지고 버려온 철저한 자립, 자력자강의 산물이며 그것으로 하여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풀머리를 앓고있다는것쯤은

알아야 한다. 미국의 창녀인 박근혜파위가 감히 존엄높은 우리의 핵강국지위를 흔들고 자위적책무력강화를 위한 우리의 정의의 위업에 제동을 걸어보려 하는것이야말로 가소로운 추태가 아닐수 없다.

더욱 가련하고 불쌍한것은 박근혜가 자기앞에 어떤 비극적종말이 다가오고있는지도 모르고 객기를 부리는것이다.

우리 백두산혁명장군은 지금 적들이 움쩍하기만 하면 일격에 불마당질해버릴수 있게 선제공격방식으로 전환하고 최후명령만을 기다리고있다.

박근혜패당은 더러운 숨통이 끊어지게 될 비참한 시각을 기다릴수 밖에 없게 되어있다.

군사적으로 예민한 최전연지역을 통채로 내주어 남조선의 려세기업가들에게 살길을 열어주고 세계적인 명승지인 금강산에서 남측기업이 관광사업을 하도록 특전과 특혜를 베풀어준 우리의 은혜를 원수로 갚은 박근혜패당은 더이상 이 땅에 살아숨쉬 자격도 없는 반역 무리이다.

동족대결에 환장한 박근혜년이 북남관계의 마지막명종이었던 개성공업지구마저 전면포쇄한데 이어 또다시 무모한 독자 《제재》 놀음을 벌려놓으며 우리와 끝까지 대결하려는 독기를 서슴없이 드러낸 조건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될것이다. 1. 이 시각부터 북남사이에서 채택발표된 경제협력 및 교류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들을 무효로 선포한다.

2. 남조선괴뢰패당이 일방적으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업지구기동을 전면중단한것만큼 이에 따라 우리는 우리측 지역에 있는 남측기업들과 관계기관들의 모든 자산을 완전히 청산해버릴것이다.

3. 박근혜역적패당에게 치명적인 정치, 군사, 경제적타격을 가하여 비참한 종말을 앞당기기 위한 계획된 특별조치들이 연속 취해지게 될것이다.

제손으로 제눈을 찌르고 제도끼로 제 발등을 찌른 박근혜패당은 우리의 정당한 조치에 대하여 그 어디에 하소연할지도 상소할데도 없을것이다.

오늘과 같이 북남관계를 험악한 최극단상태에 몰아넣은 책임은 한치앞을 내다볼 능력도, 뒤일을 감당할 대안도 없이 무작정 객기를 부리며 미국상전과 맞장구질을 해대는 특등바보, 사악한 반역의 무리인 박근혜와 그 패당에게 있다.

우리 군대의 1차적인 타격권안에 들어있는 청와대소굴에 들어박혀 온갖 못된짓을 일삼고있는 박근혜패당의 만고대죄는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주체105(2016)년 3월 10일 평양

《테로방지》 용기가, 국민감시용기가

우리는 한편 보수언론들을 내세워 북이 지하철도와 철도시설, 원자력발전소, 금융기관 등 중요시설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테로》를 준비하고있다는

요설을 퍼뜨려 사회전반에 《사이버테로공포증》을 류포시키고있다.

남조선보수패당이 2011년의 《농협전산망 사이버테로》 사건이나 2013년의 《3.20사이버테로》 사건을 비롯하여 저들의 은행과 중요기관들에 대한 해킹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것을 무작정

《북의 소행》으로 몰아붙이면서 사회에 반공화국대결분위기를 고취해왔지만 최근시기처럼 입가진자들은 다 나서서 호들갑을 떨고있는데는 그럴 만 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국회》에서 《사이버테로방지법》을 어떻게 하나 통과시키며 저들의 동족대결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이다.

문제의 《사이버테로방지법》으로 말하면 보수패당이 지난 2006년에 《발의》한 때로부터 10년동안이나 《국회》 통과를 위해 정보원안을 《사이버안전센터》를 내오는것을 골자로 하는 이 법은 얼마전에 《국회》에서 통과된 《테로방지법》을 인터넷공간에 그대로 적용한 《쌍둥이》 악법이라는것이 남조선사회여론의 일치한 평가이다.

지금 남조선야당과 각계층은 이 법을 《테로방지법》에 이은 《제2의 국민감시법》이라고 하면서 《《사이버테로방지법》은 인터넷이용자인 국민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사찰을 불러올것》,

《북은 우주에 인공위성을 쓰는데 박근혜는 국민을 향해 핵포탄을 터뜨렸다》, 《북은 100을 주면서 하나도 바라지 않았는데 박근혜는 그 100을 송두리채 빼앗아 미국에 넘겼다》 등 거세찬 비난의 목소리가 폭탄처럼 터져나왔다. 미국상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수천수만의 생존권도 무참히 유린하는 박근혜를 권력의 자리에서 한시바삐 끌어내려야 한다는것이 바로 견잡을수 없이 치닫고있는 남조선의 성난 민심이다.

박근혜가 취한 《대북 독자제재》는 결국 자기 목에 건 올가미이다.

장혁철

《테로방지법》을 통해 국민의 통신과 계좌 등을 정보원이 감시할수 있도록 하는것도 모자라 《사이버테로방지법》까지 통과시키면 사이버공간에서 정보원의 감시와 사찰로부터 자유로운 국민은 한 사람도 없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결사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남조선의 절대다수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 악법을 조작해내기 위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저마다 나서서 3월 12일 《국회》에서 이 법을 무조건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한편 사회적으로 북의 《사이버테로위협》을 부각시켜 악법조작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갖은 오그랑수를 다 쓰고있는것이다.

하지만 사회의 민주, 민권을 강그리 짓밟고 《유신》 독재시대를 통과하는 파쇼독압통치를 강화하려는 보수패당의 알뜰한 수에 속아넘어갈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남조선보수패당이 모략사건을 날조하는 방법으로 공화국을 터무니없이 절고들면서 《사이버테로방지법》 조작책동에 매달리는것은 절대로 용납할수 없는 반공화국대결망둥이다.

보수패당은 《북의 사이버위협》이라는 거짓말을 떠들어대는것이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자멸의 길이라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최석현

《테로방지법》의 위험성을 폭로

남조선신문 《한겨레》가 《국회》에서 《테로방지법》이 통과된것과 관련하여 악법의 위험성을 폭로하는 글을 실었다.

글은 《새누리당》 패거리만 참가한 가운데 정보원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테로방지법》이 통과됨으로써 괴물정보원출현이 현실로 다가왔다고 지적하였다.

정보원이 《공공》으로 불리울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되는데 비해 인권침해행위를 통해, 견제할 대책이 극히 보잘것없

다고 글은 주장하였다. 글은 《테로위협》인물에 대한 정의를 두고 각계가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막는데 악용될것이라고 우려하고있는데 대해 밝혔다.

정보원이 《대통령》 선거에 불법개입하고 서울시 공무원감찰사건, 불법해킹사건 등을 조작한것을 비롯하여 정치개입, 인권유린행위를 수많은 저질러왔다는것을 볼 때 국민의 불안감이 결코 가셔질수 없다고 글은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지난 8일 박근혜패당은 《대북독자제재》라는것을 발표하였다.

《북을 변화시키기 위한 선도적조치》라, 《북의 의화수임을 차단하고 수출입 등 각종 활동을 위축시키는데 크게 기여할것》이라느니 하면서 역적패당이 고안해낸 독자 《제재》라는것은 지금 내외의 비난과 조소만을 자아내고 있다.

한마디로 이번 《대북 독자제재》 놀음은 자기 목에 제스스로 올가미를 거는 자살적망둥이라 해야 할것이다.

뒤끝목의 조무래기에 불과한 역적패당파위가 독자 《제재》 나발을 불어댄다고 해서 떠꿈해할 공

화국이 아니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세기를 이어오는 고립압살책동속에서 도 끄떡없이 승승장구하며 백승을 떨쳐온 공화국이다. 더우기 형형색색의 유엔 《제재결의》라

는것도 한순간에 휴지장

자로 만들어버리며 만리창공에 인공위성을 련이어 쏘아리고 만리마의 속도로 문명강국건설에로 질주하고있는 바로 공화국이다.

이런 자강의 나라, 자립의 강국을 미국 없이는 한 시도 못사는 박근혜패당이 《효과적이고 맹판 독

자제재》를 한다고 하고 있으니 삶은 소대가리가 웃다 꾸메터질 일이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 각계에서도 그 무슨 독자 《제재》를 놓고 《올가미가 걸리지 않자 발뒤꿈치를 드는 자살적망둥》, 《미국어른들에게 아첨하기 위해 국

어를 죽이는 바람난 기생년의 살인마적인 행위》, 《눈뜨고 못 보겠다. 눈감고 떠나겠다》라는 개탄의 목소리들이 련일 울려나오고있다.

다른 나라의 언론들도 《도무지 실효성이 없는 명색상의 제재》, 《돌격대가 부르는 구호선창》,

《미국어른들이 귀여워하는 《한국》 어린이의 재롱스러운 장난》이라고 대놓고 야유와 조소를 보내고있다.

공화국에 대한 《제재》 놀음이라는것이 곧 자살적망둥이라는것은 지난날 역적패당에 의해 빛

어진 개성공업지구기동 《전면중단》 사태를 통해서도 쉽게 알수 있다.

이 사건을 놓고 남조선 각계에서는 《남조선의 120여개 기업과 6 000여개의 관련기업들이 얼마나 막대한 리득을 챙겨왔는지도 계산할줄 모르는 머저리같은 박근혜》,

북남관계를 완전도륙낸 《원칙론》

박근혜는 집권하여 지금껏 《북에 끌려다니지 않는 원칙》이니, 《북의 요구에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니, 《원칙있는 대응》이니,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는 원칙》이니 하며 그 무슨 《원칙》에 대해 제창해왔다.

《원칙론》을 입버릇처럼 외위대며 집권 3년간을 무섭게 질주해온 《〈박근혜〉 호 풍주기관차》, 그것이 불아온것은 현실이 보여주듯 북남관계의 총체적인 파국이다.

전임자인 리명박이 《원칙》을 떠들며 북남관계에 차단봉을 내리고 6.15의 성과들을 차레차레 말살하더니 박근혜는 《원칙》의 독기를 내뿜으며 북남관계를 완전도륙냈다.

북남관계에서의 원칙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추동하고 평화와 통일을로 나아가게 하는 원칙이어야 한다.

우리 민족에게는 이미 북남관계와 통일문제해결에서 일관하게 들고나가

야 할 통일원칙과 방략이 마련되어있다. 온 민족이 지지찬동하고 북과 남이 세계앞에 확인한 려사적인 조국통일3대원칙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이 그것이다.

특히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은 북남관계와 통일위업수행에서 항시적으로 견지하여야 할 통일의 큰 기둥이고 대원칙이다.

이 원칙을 떠난 북남관계에서의 그 어떤 《원칙》이란 있을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는 《원칙론》을 떠들면서 민족자주의 원칙에 역행하여 극도의 외세 의존에 매달렸다.

그는 동족과는 대결의 무거운 휘장을 치고 미국에서 뻔질나게 드나들며 삼선과의 구역질나는 입맞춤으로 《한미관계우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그리고

《한미동맹관계》가 확고하여야 《남북관계도 잘 풀어갈수 있다.》는 얼빠진 소리까지 늘어놓았다. 남조선당국자가 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를 외부에 들고다니며 청탁하는 놀음을 벌려대고있는데도 외세에 민족의 운명을 내맡기고 민족의 리익을 팔아먹는 매국배족행위이다.

미국의 핵위협이 날로 가증되는 조선반도에서 조미사이의 평화협정체결은 평화와 안정을 위한 초미의 과제이다.

그럼에도 역적패당은 외세의 핵에 대해서는 입도 뻐긋 못하면서 그 무슨 《북핵불용이 원칙》이니, 《북의 비핵화》가 《우선》, 《목표》니 하며 민족의 피가 거꾸로 치솟게 놀아내고있다.

《원칙론》을 운운하며 민족의 단합이 아니라 동족대결을 집요하게 추구해온것도 박근혜이다.

반공화국배라살포, 《대북심리전방송》 재개, 《대북인원》도락소동, 《중북》소동 등에 의해 북남사이의 불신의 벽은 더욱 높아져왔고 북남관계는 앞으로가 아니라 뒤로 퇴행해왔다.

남조선당국자에게는 애초부터 대화나 신뢰가 마음에 없었다. 팔수에 딱 배인것은 동족에 대한 중요였고 적대시감정이였다.

북남사이에서 모처럼 마련되던 일련의 합의와 관계개선의 분위기가 송두리채 날아간것도 역적패당의 대결책동때문이며 북남대화 관계개선을 위한 동족의 거듭되는 제의와 노력에 대해 《진정성》이라느니, 《화전량면전술》이니 하며 항용 등을 돌려댄것도 그 일당이다.

박근혜는 민족이 합의한 평화통일의 원칙에 도전하여 외세와 함께 전쟁의 불구름을 집요하게 몰아온

호전광이다. 그는 찍하면 《강경》과 《압박》을 떠들어댔다. 이것은 군사적대결과 전쟁책동의 대명사로 되고있다.

지금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벌어지고있는 《키릴브》 합동군사연습도 이 《강경》과 《압박》의 침략적 《교리》에 따른것이다. 미국과 박근혜역적패당은 이제는 《방어》의 거치장스러운 면사포마저 벗어던졌다. 《평양점령》과 《선제공격》, 《참수작전》 등에 대해 내놓고 공언하기에 이르렀다.

남조선당국자는 《북붕괴》와 《흡수통일》의 망상에 폭 빠져있다.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의한 통일》 야욕만이 머릿통에 딱 차있다.

《도끼로 100년까지 찍었는데 안 넘어간 나무가 101번째에 쓰러지게 될것》이라는 악담질이 그의

이런 《대북관》을 잘 보여주고있다. 바로 그래서 멀리 남의 나라 땅에까지 가서 《드레켄선언》이라는것을 주절댔고 또 《통일준비위원회》라는것도 내오고 제 년이 그 위원장자리에 따리를 트는것이다. 《통일대박》이라는 해피한 날말도 그래서 만들어냈다.

역적패당의 《통일의교》 분주랑도 바로 《저들주도의 통일》에 대한 그 누구의 인정과 지지를 얻어보려는 어리석은 기도 산물이다.

오늘날 조선반도에서 핵전쟁발발은 기정사실화되고 그것이 오늘이나 래일이나 하는 시간문제로 되고있다.

모든 사실들은 민족공동의 통일대원칙에 역행하여 북남관계를 도륙내고 7천만겨레와 삼천리강토를 핵전쟁의 불바다속에 처넣지 못해 지랄발광하는 박근혜

야말로 《을사오적》을 통과하는 매국노, 회세의 대결악녀, 민족의 극악한 원수임을 여실히 실증해주고 있다.

치마에 장도칼을 찬 현대판 돈 끼호테인 박근혜의 동족대결과 북침전쟁광란에 지금 온 민족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있다. 민족에게 끼친 그 씻을수 없는 죄악에 산천초목도 분노에 치를 떨고있다.

《나를 하루아침에 전쟁의 동굴속으로 몰아넣고도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른채 브레이크없이 폭주하는, 불행하게도 우리는 최악의 《대통령》을 만났다.》

이것이 전쟁발발에 시달리는 남조선생민들이 역적패당에게 보내는 저주이다.

최는 지은테로 가는 법이다. 려사와 민족은 천하의 대결악녀 박근혜의 만고죄악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반드시 결산하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최광혁

선군조선의 핵, 정의의 핵은

대답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해부한다

미국과 남조선호전당국이 《키 리졸브》, 《독수리 16》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한 것과 관련하여 본사기자(남조선정세전문기) 서정철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미국과 남조선호전당국이 내외의 한결같은 반대규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대규모적으로 벌려놓은 《키 리졸브》, 《독수리》 연습은 어떤 연습인가.

서정철: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미군과 남조선군이 2002년부터 진행하여오던 《련합전시증원》,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2008년부터 그 명칭을 현재처럼 바꾼 것으로서 남조선미국 《련합군사령부》의 주관하에 유사시 조선반도에 투입되는 《미중원군의 수용, 대기, 전방이동 및 통합》 등을 숙련하기 위한 련합지휘연습과 련합특수작전 및 후방지역작전을 위한 련합야기동연습으로서 전시에 미군의 신속한 투입과 파괴군의 작전능력, 남조선의 인적, 물적자원동원능력을 검증하고 련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력대로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이 이 연습이 《년례적이며 방어적》인 훈련

이라고 떠들어왔지만 그 성격과 내용, 훈련기간과 규모, 투입되는 무장장비 등으로 볼 때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철두철미 공화국에 대한 기습적인 핵선제타격을 노리고 감행되는 북침전쟁연습이다.

기자: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해마다 벌려놓는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서정철: 그것은 《훈련》의 명목밑에 침략전쟁연습을 감행하다가 불의에 공화국을 공격함으로써 선제타격의 효과성을 최대한 높여 침략전쟁을 수월히 하자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전쟁은 힘과 힘의 대결인 것만큼 힘을 어떻게 쓰는가 하는 것은 전쟁수행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된다. 힘을 불의에 적용하면 다시말해서 불의에 타격을 가하면 상대측은 혼란에 빠질 수 있으며 주도권을 장악하고 전쟁수행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할 수 있다. 불의의 타격의 위협성은 타격수단의 위력이 크게 장성한 현대전의 조건에서 더욱 커지고있다. 그것은 현대무기들이 살상력과 파괴력이 비할바없이 커지고 기동수단들의 속도

가 비상히 빠르기때문이다.

현시기 《기술적우세》를 자랑하는 미국은 불의의 타격에 큰 기대를 걸면서 이 수법으로 다른 나라를 《전격전》으로 정복하려고 책동하고있다.

현대군사과학기술의 발전은 위력한 타격수단들과 함께 전자정찰수단들을 만들어냈으며 조기경보체계를 세울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따라 오늘의 조건에서 상대측을 불의에 타격하기 위한 무력의 전개, 타격집단의 조성을 숨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되었으며 상대측의 대응타격을 받을 위험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 부터 미국은 군사연습을 하다가 불의에 달려드는 교활한 수법에 매달리고있다.

군사연습은 훈련계획에 따라 진행되지만 여기에는 가상적인 적을 상대로 할 뿐 각 군종, 병종부대들이 다 동원되며 실전과 같이 진행된다.

때문에 훈련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군사연습을 실제계획수행으로 옮겨놓으면 그것이 다름 아닌 전쟁으로 되는 것이다. 더우기 전쟁은 기동을 전제로 한다. 상대방이 대처하기 전에 공격무력의 작전대기상태

가 완료되면 전투의 형세는 방어측에 불리해지기 마련이다.

쏘도전쟁을 앞두고 히틀러와 쏘도당이 방대한 병력을 이동 쏘련국경지역들에 은밀히 이동 전개하고 불의의 기습으로 전쟁초반에 전과를 올릴 수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이 하나의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방대한 무력을 《훈련》이라는 명분밑에 조선반도지역에 집결시키는 것도 바로 공화국에 대한 선제타격의 효과성을 높이려는데 있다.

기자: 이번 《키 리졸브》, 《독수리 16》 합동군사연습의 위험성과 모험성은 어디에 있는가.

서정철: 《키 리졸브》, 《독수리 16》 합동군사연습의 위험성과 모험성은 단순히 규모가 사상최대로 벌어지는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극도로 모험적인 《작전계획 5015》에 준하여 공화국의 최고수뇌부와 《제도전복》을 노린 《참수작전》까지 실행하는 실동적인 전쟁수행방식으로 감행하는 바로 여기에 이번 전쟁연습의 위험성과 모험성이 있다.

《작전계획 5015》는 그 누구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다는 《작전계획 5029》, 북침전면전을 가상한 《작전계획 5027》, 공화국의 전략적대상들에 대한 공중타격을 위주로 한 국지전계획인 《작전계획 5026》 등을 통합한 것으로서 그 누구의 《붕괴》를 유도하는 것을 핵으로 하고있다.

특히 이 계획에는 유사시 《중심을 타격해 작전결과가 최대효과》를 내도록 하는 《효과위주의 동시통합전개념》이 도입되었다. 상대방의 지휘부와 통신시설을 빠른 시간내에 공격하여 《수뇌부타격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그 중점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전면전을 예견한 《작전계획 5027》과는 달리 공화국에 대한 《수뇌부타격》으로 북침전쟁의 초기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이 각본의 골자이다.

그 방식도 유사시 《특수부대에 의한 게릴라전》에 중점을 두고 압살, 유괴, 특정시설 파괴 등을 기본방식으로 택하였으며 그 실행을 위해 700여 개의 《합동요격지점》들을 확정해놓은 상태이다.

지난해에는 이 작전계획에 공화국의 핵 및 미사일시설들을 선제타격할 것을 노린 《4D작전계획》까지 포함시켰다.

이처럼 《키 리졸브》, 《독수리 16》 합동군사연습은 《방어》의 기만적인 허울마저 완전히 벗어던진 그야말로 침략적이며 공격적인 전쟁연습이다.

공화국이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나라의 방위력을 내외호전세력의 침략광기에 맞서 선제공격적인 군사적대응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조치를 취한 것은 너무도 정당하다.

미국이 《스레니스》 호핵항공모함을 비롯한 핵장비들을 가지고 으스스해하고있지만 목표가 크면 클수록 소멸하는 데는 유리한 법이다.

공화국의 중심대상물들과 지하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을 노리고 핵항공모함을 전진배치한다. 어쩌다 하며 발광하는 핵전쟁미치광이들에게 이 세상에 아직 있어보지 못한 핵보유국들사이의 전쟁을 해볼때면 해보자는 것이 공화국의 배짱이다. 공화국은 자기의 기술로 만들어낸 핵탄을 공개하여 멸적의 선언이 빈말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미국과 박근혜호전당국은 만단의 선제타격태세에 진입한 공화국의 강위력한 핵타격수단들의 사정권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이 공화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모한 《키 리졸브》, 《독수리 16》 전쟁연습을 벌려놓았다.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어찌보려는 《참수작전》을 비롯하여 실동전쟁수행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쟁연습은 공화국제도에 대한 《전복》과 《붕괴》를 목적으로 하였다.

공화국을 몰라도 너무도 모르는 전쟁광들의 부질없는 객기이다.

우리 민족의 속담에 서당개 3년이면 풍월한다는 말이 있다.

공화국과 한두해도 아니고 수십년동안 대상해보았으면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이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 그것을 위해 자기 목숨도 어떻게 바치는가를 알아야 했고 무모한 불장난이 저들에게 어떤 처절한 대가로 돌아갔는가를 깨달았어야 했다.

머리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었다.

공화국은 세계가 공인하는 존엄높은 정치대국이다.

공화국의 존엄은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영광이고 령도자의 두리에 전체 군대와

인민이 일심단결로 뭉친 위력이며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궁지이다.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자기의 존엄을 가장 신성하게 여기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명도 서슴없이 바친다.

불붙는 교실에 뛰어들어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를 모셔내오고 쓰러진 애 어린 소

전쟁은 무장장비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무기를 틀어쥔 사람의 정신력이 얼마나 굳센가에 따라 권총도 핵폭발의 위력을 낼 수 있다.

돈벌이를 위해 모여든 어중이떠중이들, 폭력과 기함으로 길들여진 오합지졸의 무리들이 신념과 의지의 강자인 공화국군대와 인민과 맞선다는 것은 썩은 닭알이 천연바위를 깨보

반공화국적대세력들의 선택만이 아니다.

공화국국방위원회 성명에도 천명된 것처럼 이번 전쟁연습이 《년례적》, 《방어적》이라는 허울마저 벗어던지고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핵전쟁도발로 간주된 이상 공화국의 자위적역적력은 도발자들은 물론이고 도발자들의 본거지까지 불바다, 재더미로 만들기 위한 선제공격, 선제타격전을 벌릴 것이다.

반공화국적대세력들의 핵전쟁위협이나 《제재》에 방어만 할 공화국이 아니다.

공격을 해도 상상밖의 주체전법으로 불이 번쩍 나게, 후회라는 말을 상기할새도 없이 무자비한 불벼락을 안길 것이다.

황당한 《제도전복》과 《붕괴》를 떠들며 전쟁소동을 벌리는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

과연 어디가 붕괴되고 어느 곳이 무덤이 될 것인가를.

자주권수호의 최후결전, 통일성전에 일떠선 공화국군대와 인민은 세계의 면전에서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에게 통쾌한 대답을 줄 것이다.

송정수

공화국의 대답

너, 파도에 잠기는 순간까지 령도자의 안녕을 부락하고 초상화를 품에 안고 숨진 어로 공들, 불타는 구호나무를 한몸으로 덮어 구원한 군인들, 떨어지는 락반에 자기를 던져 동지를 구원하는 광부들, 부모없는 아이들의 어머니가 된 처녀...

공화국군대와 인민의 이러한 희생성, 헌신성은 어느 누가 분말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것이다.

평범한 날에 발휘되는 공화국군대와 인민의 이런 희생과 헌신이 결전의 날에 어떤 엄청난 힘을 발휘하겠는가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다.

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우기 막강한 군사대국인 공화국은 오늘 최강의 자위적역적력을 보유하고 핵보유국의 전열에 서있다.

공화국이 최강의 자위적역적력을 질량적으로 억척같이 다져온 것은 막강한 군력으로 존엄을 지키고 제도를 지키고 강도와 인민을 지키고 후손만대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다. 이것을 위해 자기의 귀중한 모든 것을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리 는자들에게 무자비한 징벌을 내리려고 분노와 복수의 방아쇠에 손을 건 공화국이다. 선제공격은 미국을 비롯한



공화국의 무장력은 빈말을 모른다

멋있다, 조선의 핵탄

신문과 TV를 통해 우리 핵탄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는데 참 멋있고 힘이 부쩍부쩍 솟구친다. 지금껏 말로만 들던 우리의 핵탄을 적들이 보았으니 아마 눈이 뒤집히고 등골이 오싹해졌을 것이다.

지금 적대세력들이 우리를 굴복시키겠다고 《제재》와 핵동맹을 들고 날뛰는데 정의의 핵탄으로 침략의 본거지들을 깨끗이 날려보내야 한다.

로농적위군 대원 김성진

미국놈들이 제공하려는 《파철더미》

지금 동해와 서해상에 그 무슨 《평양정령》을 꿈꾸는 미군과 남조선군의 함선들이 짝 깔려있다 고 한다. 거기다가 육

중한 땅크니 장갑차니 하는 것들도 잔뜩 실었다니 말 그대로 《파철더미》가 아닌가. 정의의 조국통일성전

이 개시되면 각종 재래식 무기는 물론 주체탄, 통일탄 등 규격화, 표준화된 타격수단들이 송곳으로 찌르듯 정밀타격을 가해서 철성분을 내놓고는 모조리 불태워버리겠으니 이보다 더 좋은 원료가 어디 있겠는가.

우리 녀성들도 한몫

공화국의 정당당당한 평화적위성발사와 자주권수호를 위한 수소탄시험을 걸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제재》놀음을 벌리며 《선제타격》까지 운운하고있는데 대해 우리 녀성들도 치솟는 격분을 금할 수 없다. 미국이 도대체 뉘길래

그 모든 파철들을 우리 강선의 초고전력전기기로 가져다가 부글부글 녹여서 질 좋은 강철을 만들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주겠다. 파철은 많을수록 좋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공장 김명일

밝은 웃음과 창창한 미래를 바라보며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해나가는 우리 인민에게 전쟁을 강요하려 하는가. 도대체 무슨 권리로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삶을 누리려고있는 우리 공화국인민에게 노예의 굴종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라고

호령하는가. 나는 젓먹이아들애를 가진 평범한 어머니이다. 어느 책에선가 전쟁의 최대피해자는 어린이들과 녀성들이라고 씌여져 있었다. 이 세상 어느 녀성도, 어느 어머니도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 이 나라 녀성들도 평화를 귀중히 여기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우리 녀성들의 존엄을 지켜주고 빛내주는 고마운 사회주의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가꾸주고 꽃피워주는 행복의 요람을 지키기 위해서다. 전쟁을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허리 띠를 조이며 가장 엄중한

시련을 겪어야 했던 고난의 행군도 꺾이지 이겨낸 이 나라 녀성들이다. 지켜낸 존엄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알고 남의 노예로 사는 비굴한 목숨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뼈에 사무치게 체험한 우리들이다.

백두산강군의 본때를

이번에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은 《년례적》이요, 《방어적》이요 하던 허울마저 내던지고 우리의 최고수뇌부와 《제도전복》을 노린 북침핵전쟁연습의 음흉한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그러나 어렵도 없다.

만약 미국이 한사코 전쟁을 강요한다면 조국이여 나에게도 총을 달라.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에 핵전쟁의 불기름을 들뜨우려는 전쟁살인마 미제야수들과 단호히 결판을 낼 것이다. 평양산원 의사 정옥순

무적의 백두산혁명강군의 본때를 보여줄 때는 왔다. 침략전쟁에 혈안이 된 자들은 우리 인민군인들의 무자비한 타격이 어떤 것인가를 몸서리치게 느끼게 될 것이다. 조선인민군 군관 주동식

침략자들을 추호도 용서치 않는다

북 신형무기의 놀랄만 한 위력

최근 조선반도와 그 주변의 정세가 매우 심상치 않다. 미국과 이남당국이 강행하는 《키 리졸브》, 《독수리 16》 합동군사연습소동때문이다.

이남당국이 미국과 함께 해마다 벌려온 훈련이지만 올해에는 이전과 다르다. 핵항공모함이고, 핵잠수함이고, 핵전략폭격기까지 끌어들이는 것을 보니 미국과 이남당국이 정말 북과 한번 해보자는 것일까?

예로부터 전쟁에서 이기자면 자기를 알고 상대방을 잘 알라고 하였다. 하다면 미국과 이남당국이 북을 알면 얼마나 알고 전쟁도박을 해대는가 하는 것이다.

요즘 북에서 하나둘 공개하는 몇가지 무기들을 보면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지난 3월 4일 북이 새로 개발하여 전격공개한 300mm신형대구경방사포만 놓고보아도 그렇다.

북이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연구개발완성한 신형대구경방사포는 이남의 작전지대안의 주요타격대상들을 모두 사정권안에 두고있는 정밀유도체계를 갖춘 첨단장거리대구경방

사포체계이다. 파편지뢰탄, 지하침투탄, 산포탄에 의한 여러 가지 방사탄들을 발사할 수 있는데다가 고에너지 기물질을 혼합하여 위력을 높인 방사탄전투부의 위력은 그야말로 놀라운 것이었다.

여기서 주목할것은 이러한 대구경방사포들이 정밀유도체계를 갖추었으며 이동식차량에 탑재되어 있어 불의에 나타나 치고 빠지는 신속한 기동과 회피능력을 가지었다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방사포라고 하면 면적사격을 위주로 하는 포무기이다.

허나 북에서 개발한 대구경신형방사포는 면적사격이 아니라 정밀유도체계에 의한 점타격이 가능하다. 방사탄 하나하나에 《눈》이 달려있는듯이, 마치도 저격수보총으로 쏘아잡듯이 대상물을 찍어가며 타격할 수 있는 것이다.

점타격을 가하는 위력이 뛰어난 이북의 대구경신형방사포앞에서는 아무리 깊은 곳에 있는 지하갱도나 견고하게 설비된 군사시설물들이라도 맥을 찌수가 없다.

또 조선반도주변수역을 제 세상처럼 싸다니던 미국의 핵항공모함과 이지스함을 비롯한 함선들 역시 그야에서 자유로울수 없을뿐 아니라 북의 신형 대구경방사포의 좋은 먹이감으로나 제격이다.

그 무엇보다 막을수 없는 위력한 방사탄을 단 한발만 맞아도 후과는 실로 막심하기 이를데 없을진대 불줄기로 쏟아지는 방사탄에 두들겨맞으면 요란하게 덩치큰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이지스함과 같은 함선들은 순간에 고철더미가 되어 깊은 바다속에 수장될 판이다.

북이 북침전쟁이 일어날 경우 아예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놈도 없게 만들겠다고 하던 경고가 진짜 현실로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북이 은근슬쩍 공개한 신형대구경방사포만 보아도 끔찍할 정도인데 아직 내놓지 않고있는, 북의 말대로 세상이 아직 보지도 듣지도 못한 위력한 타격수단들을 다 꺼내놓는다면 적대세력들은 오금이 저러나 저도 모르게 바지에 오줌을 갈길것이다.

이전 소련이 시험한 수 소탄이 100km밖에서도 3도

화상을 입을 정도의 열을 발생했고 후폭풍은 1000km 떨어져있는 건물의 유리창을 깨 정도였다면 공화국의 수소탄위력은 그에 비할바없이다.

북은 이미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 생존권을 없애 버리고 적대세력들이 피를 물고 달려드는 엄중한 상황에 대처하여 무자비한 섬멸적타격을 가할 수 있게 선제공격적인 군사적대응방식으로 넘어간다고 선포하였다.

그런데도 전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박근혜는 무엇을 믿고 그러는지 《응징》과 《철저한 보복타격》을 임버릇처럼 외우고다니며 전쟁위험만 높이고있으니 과연 제정신인지 모르겠다.

미국도 어찌지 못하고 쩔쩔매며 두려워하는 핵을 가진 북을 제가 《응징》하고 《보복타격》한다?

괜히 전쟁도박판에 끼여 들어 차질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집권자 하나때문에 이남국민이 엄청난 화를 당하게 된다. 재난은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이다.

재미군사평론가 임민국

비명소리를 새겨들으라

《미국이 조선에서 승리를 얻으려 한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참담한 손실을 받았다. 조선에서 흘리는 미국사람들의 피는 더욱 많아질것이다.》

이것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쓰라린 패배를 당한 《5성장군》이었던 맥아더의 비명소리이다.

역사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지난 세기 50년대 세계 《최강》을 뽐내던 미제침략군의 병력과 군사기재의 손실이 제2차 세계대전시기 4년동안의 태평양전쟁에서 입은 손실의 거의 2.3배에 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미제가 당한 참패가 얼마나 쓰디쓰고 엄청난것인가를 짐작할수 있다.

문제는 오늘 미국이 그 위하여 막대한 병력과 무장장비들을 이 땅에 끌어 들였다.

그러나 수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뭉쳐 정 의 성전에 떨쳐나선 영웅적인 군대와 인민은 미제의 《강대성》과 《기술만능》에 대한 신화를 여지없이 깨버리고 역사

상 처음으로 미국이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았다. 결국 미국이 얻은것은 비참한 참패뿐이었다.

미제는 조선전쟁의 3년간 40만 5 000여명의 미제침략군을 포함한 156만 7 000여명의 병력과 1만 2 200여대의 비행기, 250여척의 각종 함선을 비롯한 막대한 전투기술기재들과 군수물자들을 잃었다.

미국신문 《유에스 뉴스 엔드 월드 리포트》는 《...미국의 손실은 아메리카인이 다섯번의 대전에서 입은 손실을 다 합친것보다 2배이상 더 많다.》라고 실도하였다. 3년간의 조선전쟁에서 미제침략군의 병력과 군사기재의 손실이 제2차 세계대전시기 4년동안의 태평양전쟁에서 입은 손실의 거의 2.3배에 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미제가 당한 참패가 얼마나 쓰디쓰고 엄청난것인가를 짐작할수 있다.

문제는 오늘 미국이 그 위하여 막대한 병력과 무장장비들을 이 땅에 끌어 들였다.

그러나 수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뭉쳐 정 의 성전에 떨쳐나선 영웅적인 군대와 인민은 미제의 《강대성》과 《기술만능》에 대한 신화를 여지없이 깨버리고 역사

《합동군사연습을 극도로 모험적인 《작전계획 5015》에 준하여 공화국의 최고수뇌부와 《제도전복》을 노린 천인공노할 《참수작전》까지 실행하는 실동적인 전쟁수행방식으로 강행하고있는 것은 공화국에 대한 전면적인 전쟁포고이다.

지금까지의 조미대결전의 력사에서 미국은 단 한 번도 승리해본적이 없다. 도저히 이길수 없는 상대인 공화국에게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패배를 당한 미국은 아예 분별을 잃고 날뛰고있다.

지난 세기 증엽에 미국이 대적한 상대가 갖 창건된 청소한 공화국이었다면 오늘의 조선은 수소탄까지 보유한 최강의 핵보유국이다.

이런 공화국을 어찌보겠다는 미국이야말로 어리석기 그지없다.

미국이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다면 그 도화선이 타기도 전에 공화국의 막강한 군사력은 위성톤을 불바다로 만들것이며 세기를 이어오는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안아올것이다.

미국은 경거망동하기 전에 지난 조선전쟁에서 공화국에게 비참하고 쓰디쓴 패배를 당한 그날의 비명소리를 다시 새겨듣는 것이 좋을것이다. 신춘호

위험천만한 합동군사연습을 즉시 중지하라

남조선의 안산지역단체들 강력히 주장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안산본부들 비롯한 경기도 안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의 중지 요구하여 7일 안산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단체들은 남조선과 미국이 벌리는 《키 리졸브》, 《독수리 16》 합동군사연습으로 하여 조선반도정세가 최악의 위기로 치닫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에는 《죽적계식정밀타격》, 《평양점령》 훈련을 비

롯하여 북을 침략하기 위한 선제공격의 성격이 로 골적으로 담겨져있다고 단체들은 까발했다.

단체들은 박근혜 《정권》이 개성공업지구가동을 전면중단시키고 남북관계를 대결상태로 몰아갔다고 하면서 이러한 상

태에서 북침합동군사연습으로 또다시 군사적긴장이 고조된다면 사태는 더욱 험악한 지경에 이르게 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위험천만한 합동군사연습을 즉시 중지하라고 단체들은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미친 박근혜가 있는 곳으로 가지 말라》

《아직도 한강이북에 사시나요.》

이 말은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가 조성되었던 1993년대 초 서울에서 떠돌던 인사말이다.

당시 미국과 김영삼호전세력은 그 누구의 《핵의혹》을 구실로 공화국의 군사대상들에 대한 《특별사찰》을 조작하고는 그것이 먹혀들어가지 않자 대규모적인 《팀 스피리트 93》 합동군사연습의 강행으로 일촉즉발의 엄중한 정세를 조성하고 전쟁도박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었다.

여기에 대처하여 공화국은 전국, 전민, 전군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한다는

리부터 비행기표를 구입한다. 외국에 있는 호텔들에 방을 예약한다 하면서 소동을 피웠다.

전쟁상황으로 치닫는 정세를 반영하여 서울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기만 하면 《아직 한강이북에 사시나요.》라는 인사말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이것은 전쟁이 터지면 어차피 서울이 그 첫재가는 피해를 입을것은 뻔하니 미리 피신할수 있게 한강이남에 자리를 잡아야 편하다는 속마음을 표현한 것이었다.

지금의 상황은 1993년초에 비할바없이 훨씬 더 위험하다.

지금 공화국은 자주권과 생존권을 말살하려는 미국과 박근혜호전당국의 무분별한 핵전쟁도발책동에 단호히 맞서 도발자들에게 무자비한 섬멸적타

격을 가할수 있게 선제공격적인 군사적대응방식을 취할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임의의 시각에 쏘아버릴수 있게 준비된 소형화, 정밀화, 다중화된 핵공격수단들과 각이한 구경의 방사포들을 비롯한 위력한 타격수단들이 도발과 침략의 본거지들을 향해 항시적인 발사대기상태에 들어가 있다.

만약 미국과 박근혜호전당국이 공화국의 이러한 경고를 외면하고 무분별하게 전쟁을 몰아온다면 그 결말이 어떻게 되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한 가입자가 인터넷에 올린 《미친 박근혜가 있는 (한국)에는 가지 무분별한 핵전쟁도발책동에 단호히 맞서 도발자들에게 무자비한 섬멸적타

격을 가할수 있게 선제공격적인 군사적대응방식을 취할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임의의 시각에 쏘아버릴수 있게 준비된 소형화, 정밀화, 다중화된 핵공격수단들과 각이한 구경의 방사포들을 비롯한 위력한 타격수단들이 도발과 침략의 본거지들을 향해 항시적인 발사대기상태에 들어가 있다.

만약 미국과 박근혜호전당국이 공화국의 이러한 경고를 외면하고 무분별하게 전쟁을 몰아온다면 그 결말이 어떻게 되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한 가입자가 인터넷에 올린 《미친 박근혜가 있는 (한국)에는 가지 무분별한 핵전쟁도발책동에 단호히 맞서 도발자들에게 무자비한 섬멸적타

격을 가할수 있게 선제공격적인 군사적대응방식을 취할것이라고 선언하였다.

《평양점령》? 미꾸라지의 룡꿈

지금 남조선에서는 《키 리졸브》, 《독수리 16》 합동군사연습의 일환으로 《쌍룡》훈련이 벌어지고있다.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미해병대 9 000여명과 해군 3 000여명, 남조선군 해병대와 해군 4 500여명 등 력대 최대규모의 인원이 투입되었으며 미해군의 갑급상륙함인 《본훈리차드》호, 스텔스상륙함 《뉴올리언스》호를 비롯한 수십척의 대형상륙함선들과 전투기, 수송기들이 동원되어 전쟁분위기를 고취하고있다.

호전광들은 이 훈련이 《동해와 서해안에 (한)

미해병대를 상륙시켜 거점을 마련한 뒤 내륙 깊숙이 진격해 핵과 미싸일기지를 무력화하고 북수뇌부가 있는 평양을 최단기간안에 점령한다는 씨나리오》라고 로골적으로 떠들면서 정세를 전쟁점령으로 끌고가고있다.

남조선에서 해마다 벌여지는 《쌍룡》훈련이 올해처럼 최대규모의 병력과 첨단상륙함선들이 참가하여 《평양점령》을 공개적으로 떠든적은 일찌기 없었다.

남조선보수패당이 미국과 야합하여 최대규모의 《쌍룡》훈련을 또다시 벌려놓고 감히 《평양점령》을 운운하는것은

공화국에 대한 전면도전이며 북침도화선에 불을 달리는 히스테리적광기이다.

지난 시기 걸어나마 떠들던 《년례적》이요, 《방어적》이요 하는 기만적인 허울마저 벗어던진채 미국을 등에 업고 북침전쟁의 마차를 미친듯이 몰아가고있는 남조선보수패당의 망동은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의 량심있는 사람들의 증오와 격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하지만 남조선보수패당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그들이 꿈꾸는 《평양점령》이란 미꾸라지

의 한갓 룡꿈에 불과하다는것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반역패당의 소굴인 서울은 코앞이다.

공화국국방위원회 성명에 지적되어있는바와 같이 장장 반세기이상 준비하여온 통일성전은 이제 세기가 생겨 보지도 듣지도 못한 상상밖의 주체적전쟁방식으로 불이 번쩍나게 이루어질것이다.

미군의 대형상륙함과 같은 비대한 전쟁괴물들이 《평양점령》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바다에서 허우적거릴 때 조선인민군의 강력한 타격에도 잠길것이라는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은 공화국의 한치의 땅도 밟을수 없고 군사분계선조차도 넘어서지 못할것이다.

침략과 전쟁으로 살찌운 미국의 최강의 력사가 어떻게 끝장나고 동족대결에 환장이 된 박근혜패당의 수처스러운 잔명이 어떻게 비참한 종말을 고하는가는 시간이 증명해 줄것이다.

그때 가서 남조선보수패당은 무덤하게도 《평양점령》이라는 허바닥잔 재주를 부린 후과가 얼마나 참혹한것인가를 뼈에 사무치게 깨달을것이다. 본사기자 김철민



청와대마녀가 몰아온 극도의 전쟁위기

극도의 불안이 지금 남조선을 휩쓸고있다. 동족대결에 미칠대로 미쳐 돌아가는 청와대 안방주인 박근혜가 화해와 협력을 바라는 겨레의 절절한 호소는 한사코 외면하더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들어와 또다시 외세와 함께 조선반도에 최악의 전쟁위기를 몰아왔기 때문이다.

올해 공화국에서 첫 수 소탄시험과 인공지구위성 발사가 완전성공했을 때 겁에 질린 박근혜는 그 무슨 유엔 《결의》 위반을 떠들어대면서 제재소동을 일구다 못해 2월 10일 개성공업지구가동을 전면중단할것을 선포하는데 이르렀다. 그리고 3월 2일에는 남조선 《국회》를 압박하여 극악한 동족대결악법인 《북인권법》과 《테로방지법》을 강압적으로 조작해내었다. 이로써 북남관계를 완전히 결판낸 박근혜는 3월 7일부터는 미국의 핵항공모함전단과 핵잠수함, 《B-2》, 《F-22》 스텔스전투기 등 방대한 핵전쟁장비들과 첨단무기들을 끌어들이어 사상최대의 반공화국핵전쟁연습소동을 벌여놓고있다.

동족대결의 종착점은 전쟁밖에 없다.

먹이를 노린 승냥이마냥 가증스럽게 밀려든 미국의 최신핵타격수단들, 대규모의 핵무기전시장으로 화한 남조선과 그 주변. 오늘의 핵전쟁발발국면은 미국과 회세의 대결광인 청와대마녀 박근혜가 몰아온 가장 심각한 위기중의 위기이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에서는 이번 《키 리졸브》, 《독수리 16》 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는 민심의 강력한 목소리가 그 어느때보다도 높이 울려나오고 있다. 주목되는것은 남조선여론이 이번 합동군사연습의 규모가 《유신》 독재자의 집권시기에 발생한 판문점사건이후 사상최대라고 하면서 그 후과는 상상을 초월할것이라고 력점을 찍고있는것이다.

그도 그럴것이 40년전 《유신》 독재자는 미국의 대조선전략정책에 편승하였다가 심각한 위기를 겪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전쟁연습소동과 군사적도 발행위를 계단식으로 확대해오다가 1976년 8월 18일 판문점사건을 조작하고 그것을 구실로 모든 침략무력과 현대적군사장비들을 총동원하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소동

을 미친듯이 벌였다. 이번 전쟁연습소동에도 미제침략군 2만 7000여명, 남조선군 30만여명, 추종국가군대들을 포함한 방대한 무력과 《스테니스》 호 핵항공모함타격단, 《본홈 리차드》 호 상륙준비단, 《B-52》, 《B-2》 핵전략폭격기, 《F-22A》 스텔스전투기, 사전장비적 재합성전단 등 미국의 모든 핵전쟁살인장비들이 총 투입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40년전에 미국이 공화국보다 병력수나 군사장비가 작아서 무릎을 꿇은것이 아니다. 더 앞서 지난 1950년대 조선전쟁시기에도 미국은 갖 창건되어 수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너무나도 열세하다고 보았던 공화국에 대침해를 당했었다. 그때보다 오늘 공화국의 군사적위력은 훨씬 더 강화되었다. 핵선제타격수단이나 고성능의 핵무기는 미국만 가지고있는것이 아니다. 그러니 승패는 어떠할것인가.

숨막히는 이 사실을 남조선의 민심은 의식하고 있는데 유독 박근혜만은 가늠하지 못한채 죽을듯 살듯 모르고 날뛰면서 미국을 겨는 공화국의 조준경안에 남조선을 꺼들고 제발로 기신기신 제바라

들어와 자멸을 재촉하고 있다.

씨종자도 남기지 못한 박근혜가 죽는다고 무슨 여한이 있으랴만 남조선인민들이야 어디 그런가. 가관은 총의 무게가 얼마인지, 총알이 몇그람이나 나가는지도 모르는 알짜 무식쟁이에, 군사물결란 전혀 모르는 생동들이 전향 《대통령》이요, 《정부》, 군부의 요직이요 뭐요 잔뜩 틀고앉아 대결과 전쟁을 부르짖고있는것이다.

군사의 군이란 말도, 핵이란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런 얼간이들이 대결광기에 미쳐돌아가면서 남조선을 그야말로 핵전쟁판으로 만들려고 하고있다. 북통은 외세의 삽살개인 박근혜가 두드리는 데 가장 큰 피해를 당할것은 인민들이다. 남쪽에서 《녹아나는건 인민들뿐》, 《불안해 못살겠다》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가는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본사기자 김련옥

암흑수의 《새벽》다령

얼마전 남조선군의 그 무슨 《장교합동임관식》에 참가한 박근혜가 《진정변화》니 뭐니 하는 껌변적인 망발을 늘어놓다가 벨은 말이 《동트기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였다. 마치도 북남관계악화의 암흑이 《동일》을 부르는 《새벽》인듯이...

《동트기전 새벽이 제일 어둡다.》? 이 속담은 자연현상인 려명전야에 비겨 암흑이 아무리 짙어도 새날은 반드시 밝아온다는 뜻을 가리킨다.

하다면 박근혜가 말하는 《새벽》이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곧 《흡수통일》이라는 어리석은 망상이다.

외세를 등에 업고 핵전쟁의 불구름을, 갖은 악법조작과 《종북》소동과 같은 동족대결의 검은구름을 몰아오는 박근혜에게는

어 썩은것을 그 뜻도 모르면서 졸졸 따라와있을 뿐이다. 전임자인 리명박의 지능지수가 2MB(메가바이트)라면 박근혜는 그의 10분의 1도 안된다는것이

씨종것을 그 뜻도 모르면서 졸졸 따라와있을 뿐이다. 지은 죄로 하여 제명을 다 못살고 천벌을 받아 비명횡사한 이런 인간추를 황가놈의 망령까지 불러들여 동족대결에 미쳐날뛰는 박근혜에

어 썩은것을 그 뜻도 모르면서 졸졸 따라와있을 뿐이다. 지은 죄로 하여 제명을 다 못살고 천벌을 받아 비명횡사한 이런 인간추를 황가놈의 망령까지 불러들여 동족대결에 미쳐날뛰는 박근혜에

《흡수통일의 새벽》이 빨리 왔으면 할것이다. 동족의 자주권행사에 박수를 치지 못할지언정 외세보다 더 배아파하며 사대질해온 박근혜역적패당이다.

개성공업지구전면중단, 동족을 헐뜯고 해치려는 악랄한 《북인권법》, 《테로방지법》 조작, 남조선에 끌어들이고있는 미국의 핵전쟁장비들... 박근혜의 극악한 망동으로 하여 지금 북남관계는 한치앞도 헤아리기 힘든 상태이다.

그의 껌변은 북남관계를 망쳐놓았던 선임자의 말을 상기시켜준다.

《통일은 한밤중에 도착같이 온다.》

리명박이 《흡수통일의 산현장》이라며 베를린에 가서 내뱉은 말이다.

《북붕괴》의 황당한 망상으로 리명박은 그 무슨 《비상통치계획 부흥》이라는 《흡수통일계획》을 짜놓고 《북붕괴》를 기다리다가 제풀에 물러앉아 아직도 밤의 악몽에서 헤매이고있다.

그 뒤를 이어 권력을 가로챈 박근혜가 리명박의 《대북정책》인 《비핵, 개방, 3000》에 분철을

에로 부추기는 천하의 악한짓뿐이다. 지은 죄로 하여 제명을 다 못살고 천벌을 받아 비명횡사한 이런 인간추를 황가놈의 망령까지 불러들여 동족대결에 미쳐날뛰는 박근혜에

어 썩은것을 그 뜻도 모르면서 졸졸 따라와있을 뿐이다. 지은 죄로 하여 제명을 다 못살고 천벌을 받아 비명횡사한 이런 인간추를 황가놈의 망령까지 불러들여 동족대결에 미쳐날뛰는 박근혜에

하여 《신뢰프로세스》니 뭐니 하며 발버둥치지만 대결광신자가 몰아온것은 전쟁의 검은구름이며 북남관계에 드리운것은 한치앞도 안 내다보이는 철철야밤이다.

그럼에도 박근혜가 격에 어울리지 않는 속담까지 써가며 《새벽》을 껌친것은 북남관계를 완전파산으로 몰아간 자기의 천인공노할 죄악을 합리화하려는것일것이다.

하지만 우리 민족이 바라는 통일은 외세와 박근혜패당이 바라는 《흡수통일》이나 《북붕괴》와 같은것이 아니다.

북남관계의 빛이란 빛은 다 막아버리고 먹물을 뿌려내는 청와대암탉이 아무리 꼬꼬대거려도 공중루각같은 망상인 《흡수통일》의 《새벽》은 울수가 없다.

만일 박근혜가 이것을 망각하고 미국과 함께 단한점의 불꽃이라도 튀긴다면 그 순간은 공화국이 선언한대로 조국통일대전의 성스러운 포성이 울리는 날이 될것이다. 박근혜가 바라는 《새벽》이 아니라 민족이 바라는 진정한 통일의 새벽이 올것이다.

본사기자 황진옥

나오고있겠는가. 동족대결에 미쳐날뛰던 자들치고 제명을 끝까지 채운자가 없다.

심복의 흉에 맞고 즉사한 제애비처럼 남조선인민들을 향해 온갖 헤아릴수 없는 파조적악행만을 저질러온 박근혜이니 아마 그 목숨을 노린 정위의 화살들도 수천수만일것이다.

더우기 조국을 반역하고 천벌을 받아 비명횡사한 황가놈의 더러운 망령이 시키는대로 동족대결소동에 미쳐날뛰다 못해 민족의 삶의 터전에 핵전쟁의 불구름까지 몰아오니 지옥의 사자인들 어찌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고 있겠는가.

먼저 간 대결광들이 손저어 부르고있는 지옥으로 장송곡을 울리며 박근혜가 서둘러 떠나가고 있다.

본사기자 김명성

집중이다. 이렇게 정신평역이 전부 오동작용을 하고있으니 남조선인민들이 박근혜의 악정을 《정치는 유신, 경제는 등신, 복지는 배신, 남북관계는 불신, 인권은 망신, 미국에는 굴신》이라고 욕을 하며 《병신년》이라고 저주하는것이다.

《밤이 임으로 들어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세상마치는 날이 고민이 끝나는 날》이라고 고민하면서 《팔자닷컴》을 운운하며 점쟁이나 찾아다니던 박근혜가 이제는 완전히 리성을 잃고 정신평역중의 말기중세를 보인다.

병신년의 《병신년》, 이것은 남조선을 반인민적악정의 《세계적표본》으로 만들고 한피졸도 모르고 대결에만 미쳐날뛰며 외세는 신주모시듯 하는 망년에는 박근혜에 대한 웅망한 평가라 하겠다.

본사기자 김정혁

《공천》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개싸움

남조선에서 《총선》이 하루하루 다가오에 따라 《공천》을 둘러싸고 《새누리당》내부의 계파싸움이 더욱더 치열해지고있다.

민심을 외면하고 벌어지는 계파간의 다툼질은 보는 사람들조차 민망스럽게 한다.

이미 알려진것처럼 지난 2월말 친박계와 비박계는 《40명공천살생부》를 놓고 한바탕 다툼바가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대표가 《사과》하는식으로 《공천살생부》논란은 꺾였지만 그것은 끊어지진 상처를 거미줄로 임시 껌매는 격이었다. 그러니 다시 터지는것은 시간문제였다.

현실적으로 《새누리당》《공천》관리위원회가 현역의원들을 배제하는 구체적기준안을 내놓은지 얼마 되지 않은 지난 3일 지역구경선후보 여론조사결과가 언론에 공개된것을 계기로 친박대 비박사이의 싸움은 또다시 터졌다. 각 지역별 여론조사결과가 공개되자 비박계는 이것이 저들을 죽이기 위한 《음모》라고 들고나왔고 친박계는 그들대로 저들이 쥐고있는 《공천》관리위원회를 허물기 위한 《의도적》인것이라고 하며 서로 상대방에 대한 비난에 열을 올리었다. 나중에는 저들의 개싸움을 심판 좀 해달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한다. 검찰수사를 의뢰한다 하는것과 같은 희

비극을 연출하였다.

이것으로 좀 즈름하겠는가 하였는데 이번에는 비박계에 대한 친박계의 로골적인 정면공격으로 또다시 대결의 불길이라 울랐다. 친박계인 윤상현이 《김무성이 죽어버리게. 죽어버려. 비박계다 죽여. 그래서 전화했어.》라며 《새누리당》대표와 비박계에 욕설을 퍼붓는 음성이 담긴 록음자료가 8일 폭로된것이다. 이것이 공개되자 비박계는 《총선》을 앞두고 당내에 심각한 파문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규정해서 윤상현을 당률리위원회에 회부하자, 의원총회를 열자는 의견부터 시작해서 《공천》배제와 정계은퇴가 마땅하다는 등 지금까지 친박계에 쌓이고 쌓인 울분의 주장이 홍수처럼 터져나왔다. 그런가 하면 친박계와 비박계의 싸움에 밀려 비루먹은 개처럼 한쪽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친리(친리명대 비박사이의 싸움은 또다시 터졌다. 각 지역별 여론조사결과가 공개되자 비박계는 이것이 저들을 죽이기 위한 《음모》라고 들고나왔고 친박계는 그들대로 저들이 쥐고있는 《공천》관리위원회를 허물기 위한 《의도적》인것이라고 하며 서로 상대방에 대한 비난에 열을 올리었다. 나중에는 저들의 개싸움을 심판 좀 해달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한다. 검찰수사를 의뢰한다 하는것과 같은 희

이것으로 좀 즈름하겠는가 하였는데 이번에는 비박계에 대한 친박계의 로골적인 정면공격으로 또다시 대결의 불길이라 울랐다. 친박계인 윤상현이 《김무성이 죽어버리게. 죽어버려. 비박계다 죽여. 그래서 전화했어.》라며 《새누리당》대표와 비박계에 욕설을 퍼붓는 음성이 담긴 록음자료가 8일 폭로된것이다. 이것이 공개되자 비박계는 《총선》을 앞두고 당내에 심각한 파문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규정해서 윤상현을 당률리위원회에 회부하자, 의원총회를 열자는 의견부터 시작해서 《공천》배제와 정계은퇴가 마땅하다는 등 지금까지 친박계에 쌓이고 쌓인 울분의 주장이 홍수처럼 터져나왔다. 그런가 하면 친박계와 비박계의 싸움에 밀려 비루먹은 개처럼 한쪽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친리(친리명대 비박사이의 싸움은 또다시 터졌다. 각 지역별 여론조사결과가 공개되자 비박계는 이것이 저들을 죽이기 위한 《음모》라고 들고나왔고 친박계는 그들대로 저들이 쥐고있는 《공천》관리위원회를 허물기 위한 《의도적》인것이라고 하며 서로 상대방에 대한 비난에 열을 올리었다. 나중에는 저들의 개싸움을 심판 좀 해달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한다. 검찰수사를 의뢰한다 하는것과 같은 희

막말파문이 걸잡을수 없이 커지니 친박계는 취중에 잘못 한 말이라고 본인이 사과해야 한다는니 하며 떠들면서 불법적으로 특출된 말인데 비박이 지나치다스니 뭐니 하며 제편에서 투덜대고 있다. 《공천》을 둘러싸고 갈

수록 치열하게 벌어지는 친박계와 비박계의 다툼질은 그야말로 하나의 뼈다귀라도 더 차지하겠다고 물고 메치며 죽을듯살듯 모르고 날뛰는 개들의 싸움질을 방불케 한다.

민심은 제쳐놓고 제 밥그릇만 챙기려는 《새누리당》의 인간오물들이 정치를 한다면 얼마나 하겠는가. 그런자들이 앉을 자리가 《국회》가 아니라 시궁창이 제격일것이다.

본사기자 김응철

《2016년은 룡십갑자로 병신년(丙申年)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녀성인 박근혜와 병신(病身)을 엮어서 《병신년》이라는 조롱이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의 집권자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이다.

병신년이라는 올해의 룡십갑자로 지칭되는 남조선집권자의 별호 《병신년》.

그 말에 타당성이 있다. 올해에 들어서면서 박근혜가 해놓은것을 보면 온전한 사고나 정신상태이기에 못하든지, 《제2의 보안법》이라고 하는 《테로방지법》과 동족대결악법인 《북인권법》을 한사코 통과시켰다지,

병신년의 《병신년》

동족의 자주권행사를 배아파하며 《신뢰》의 가면마저 벗어던지고 《붕괴》를 고아대지...

정신이상증세를 넘어 정신분열중세, 그것도 말기중세를 보이고있다.

그 말기중세를 집권 3년을 통해 분석진단해보기로 하자.

박근혜가 권력의 자리에 올라설수 있었던것은 그가 《준비》되어서가 아니라 《새누리당》에 인물이 없어서였고 보다는 예비의 후광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박근혜는 《공주병》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박근혜의 오만, 독선, 불통은 바로 《공주병》의 발작인 과대망상증에서 나온것이다.

동서고금 폭군들의 공통점은 의심병이다.

누가 나를 비웃지 않는지, 내 말이 제대로 내리먹는지, 내 자리를 노리는 적수는 없는지... 사람들의 말 하나, 행동 하나를 모두 의심한다.

왜? 뭣때하지 못하기때문이다.

그래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아래것들에게 눈을 부라리며 탄압을 동원하며 항상 은둔해있으려 한다.

오죽하면 《새누리당》것들도 《〈새누리당〉대표는 땅대표이다. 당대표도 청와대에 들어가면 땅바닥에 납작 엎드리니 땅대표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드디어 신이 되었다.》고 불평을 쏟아냈는가.

박근혜의 의심병은 권력광증, 폭압만능증, 집권불안증의 합병증세로 두드러졌다.

그 예비에 그 딸이라고

《유신》의 유전자를 이은 박근혜가 달리 될수는 없는것이다.

사대열병과 대결지랄중도 유전적인 선천성중세다.

미국에만 가면 자기를 인정해달라고 갖은 아양을 다 떨며 《핵우산》보호나 전시작전통제권연장을 구걸하고 또 백년속적에게서 몇푼의 돈을 받기로 하고 《최종적 및 불가역적》인 협의를 하여 치욕의 력사를 부정하고 민족의 존엄을 팔아먹었다.

하지만 동족에게는 언제나 피눈으로 암송냥이의 이발을 드러낸다.

미국을 겨냥한 동족의 자위적억제력도 《도발》이라 하고 평화적인 인공지구위성발사도 《미사일발사》라고 하니 청맹과니의 피해망상증이고 버릴수 없는 대결편